



[뉴스] 푸르덴셜·더K손보 등 보험 M&A 큰 장 02



Economy

코스피	2060.74 (-8.15)	코스닥	617.61 (-7.66)
금리 (연이자율)	1.43 (+0.02)	환율 (1달러)	1190.20 (-4.10) (5일)



제56회 무역의 날 기념식

‘흔들리지 않는 무역 강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무역의 날’ 기념 행사를 하고 있다. 사회자 안내에 따라 연출대 버튼을 누르자 무역선 출발 모습이 무대 중앙 스크린에 나타났다. /연합뉴스

안정 속 세대교체로 딥체인지 실행력 ↑

SK그룹 임원인사 단행

그룹안정 방침... 인사폭 최소화
사장 승진 9명, 신규선임 108명
주요 계열사 CEO 대부분 유임
여성임원 7명 선임 ‘역대 최대’



박성하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 이용욱 SK머티리얼즈 사장



최진환 SK브로드밴드 사장 / 차규탁 SK루브리컨츠 사장

SK그룹이 임원 인사를 통해 안정과 세대교체 ‘일석이조’를 노린다.

SK그룹은 5일 수펙스추구협의회를 통해 앞서 관계사 이사회가 결정한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을 최종 확정했다.

올해 임원인사는 처음으로 보직을 통합해 규모를 대폭 줄였다. 사장 승진 9명과 신규 선임 108명, 총 117명에 불과하다. 주요 계열사 최고 경영자도 대부분 유임하면서 안정을 추구했다.

SK는 “주력 관계사 CEO의 경우 큰 변화없이 안정적인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되, 각 사별 부문장급 임원들의 경우 세대 교체로 통해 불확실성이 커진 글로벌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딥체인지 실행력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세대교체와 쇄신 노력도 빼놓지 않았다.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 에너지·화학위원장을 SK이노베이션 김준 사장에,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을 SK장동현 사장에 새로 맡겼다.

수펙스추구협의회 협회사 CEO 4명도 신규로 내정했다. 박성하 수펙스추구협의회 전략지원팀장이 SK C&C 사장으로, 차규탁 기류사업본부장이 SK루브리컨츠 사장으로 이동한다. SK브로드밴드도 최진환 ADT캡스 대표를 새로 맡았다.

내년부터는 반도체 사업 시너지도 본격화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SK머티리얼즈 장용하 사장이 SK실트론으로 이동하고, 그 자리에 이용욱 SK 투

자2센터장이 새로 보임됐다.

반도체 사업 중심인 SK하이닉스는 진교원 D램개발사업담당을 개발제조 총괄 사장으로, 진정훈 글로벌 디벨롭먼트 그룹 담당을 사장으로 임명했다.

그밖에 SK바이오팜 조정우 대표를 대표이사 사장으로, 박찬중 디스커버리 총괄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 조치하며 힘을 실어줬다. SK유니버시티 사장에는 조돈현 수펙스추구협의회 HR지원팀장이 새로 보임됐다.

임원 다양성도 확대했다. 신규 임원 중에는 여성이 역대 최대인 7명이나 됐다. 그룹에서 여성 임원이 총 27명으로 대폭 늘었다.

외국인인 장웨이 중국사업개발 전문가와 에릭 데이비스 AI전문가도 새로 임원으로 선임하면서 글로벌 문화 확산에도 힘을 실었다.

SK그룹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행복 경영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사람과 조직의 재설계라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juk@metroseoul.co.kr

K-바이오 기술수출 잇따라... 총 4조

알테오젠, 1.6조 규모 기술수출 등 바이오벤처 3개사 대규모 계약

국내 바이오벤처들이 올해를 마감하며 잇달아 대규모 기술수출의 낭보를 전하고 있다. 기술수출로 수령하는 금액 규모는 4조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내년 초까지도 큰 건의 기술수출이 더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벤처 세곳이 최근 한달간 글로벌 제약사와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바이오벤처 지아이노베이션은 지난 달 28일 중국 제약사인 심시어와 면역항암제 GI-101에 대한 중국 지역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GI-101에 대한 중국 지역(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에서의 독점적 개발 및 상업화 권리도 획득하게 됐다. 지아이노베이션은 심시어로부터 반

납의무가 없는 계약금 600만달러(약 70억원)와 이후 임상개발, 허가, 상업화, 판매 등 단계별 마일스톤으로 최대 7억9000만달러(약 9000억원)를 순차적으로 받게 된다. 제품 출시 이후에는 심시어의 순 매출액에 따라 두 자릿수 비율까지의 경상 기술료 (로열티)도 받는다.

GI-101은 지아이노베이션 보유한 이중융합단백질 개발 기반기술인 ‘지아이-스마트’ 플랫폼을 이용해 만든 면역항암제다. 면역 관문억제 뿐 아니라 면역세포 증식과 활성화하는 두 가지 기전이 동시에 작용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혁신적인 면역 항암제로 내년 6월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임상 진입을 앞두고 있다.

알테오젠은 지난달 29일 10대 글로벌 제약사와 총 1조 6190억원 규모의 ‘인간 히알루로니다제(ALT-B4) 기술’에 대한 비독점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

했다고 밝혔다.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은 1300만달러(약 153억원)로, 수령 가능한 최대 금액은 13억7300만 달러(약 1조6190억원) 규모에 달한다. 알테오젠은 해당 기술을 여러 제품에 적용해 각 국가별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허가를 받거나 판매 이정표를 달성하면 마일스톤을 받기로 했다. ALT-B4 기술은 세계 두 번째 재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효소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대체하는 원천 기술이다.

백신개발 바이오 벤처 큐라티스도 같은 날 인도네시아 1위 국영기업 바이오파마사에 성인·청소년 결핵백신 ‘Q TP101’의 라이선스와 독점판매권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규모는 1조 2000억원에 달한다. 큐라티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임상시험을 담당하게 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

대학들 뿔났다... “획일적평가 폐지, 자율권 달라”

한국대학교육협, 교육부·기재부에 163개 대학 동의 대정부 건의서 전달



대학 총장들이 교육부의 획일적인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쓰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국가장학금 II유형 참여조건 완화를 제안해 사실상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의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63개 이상의 대학 동의를 얻은 3가지 요구를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4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건의문은 등록금 동결정책,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대학 재정난과 고등교육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대학들의 의견을 모은 것으로 다수 대학이 정부

정책에 이견을 담은 건의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대학들은 우선 교육부가 2021년 시행을 예고한 대학기본역량진단(시안)을 ‘재정지원대학’, ‘미지원대학’, ‘감액지원대학’으로 구분해 선정하는 등 기존의 획일적 상대평가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최대 규모 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제한, 1년 단위 연차평가와 이를 통한 사업비 중도 삭감·재배분 등을 폐지하고 사업비의 완전 일반지원 전환을 요구했다.

건의문에는 특히 등록금 동결·인하와 관계없이 학부등록금 대비 교내 장학금 비율이 15%를 넘으면 국가장학금 II유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는 제안도 포함됐다. 대다수 대학의 교내 장학금 비율이 이를 상회하는 걸 고려하면, 사실상 대학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 폐지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2017회계연도 기준 사립대 등록금 수입 대비 교내장학금 비율은 19.5%까지 증가했다. 반면 대학들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개년도 불가 인상률의 1.5배 이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으나, 교육부의 재정지원 연계에 따라 11년째 등록금 동결·인하 상태다.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과 인하 등으로 대학의 예산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교육과정 운영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대폭 축소돼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며 “교육의 질 유지를 위한 가용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

文, 차기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지명

검찰개혁 완수 책임자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장관직 취임 35일만에 사의를 표명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현정 사상 최초 지역 5선 여성 국회의원’인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를 내정했다. 여권 중진 인사인 추 전 대표의 법무부장관 내정은 ‘부진했던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장관에 내정된 추 의원은 소외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학을 지닌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며 “정계 입문 후에는 현정 사상 최



초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그간 추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여권에서는 추 내정자가 검찰개혁을 완수할 책임자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이는 추 내정자가 그간 보여준 성과와 연관이 깊다. /우승훈 기자 dn1114@

보험 M&A 큰장 섰다... 2조대 푸르덴셜, 더K손보도

푸르덴셜생명, 매각가 2조 추정
KB·우리금융 등 인수전 전망

더케이손보, 하나금융에 안길 듯
가격 협의엔 연내인수 가능성도



푸르덴셜생명 사옥 전경. /푸르덴셜생명

푸르덴셜생명, 더케이손해보험 등 매력적인 매물이 인수합병(M&A) 시장에 나왔다. 그동안 국내 보험사 M&A 시장은 단골 매물 후보로 떠오르던 KDB생명, 동양생명, ABL생명, MG손해보험 등의 매력도가 낮아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알짜배기 매물의 등장으로 활기를 띠 전망이다. 잠재적 인수자로 꼽히는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보험업계 판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푸르덴셜파이낸셜은 한국 푸르덴셜생명 매각주관사로 골드만삭스로 선정해 매

각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만삭스는 KB금융, 우리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와 대형 사모펀드(PEF)들에 투자안내서(티저레터)를 발송하며 본격적으로 인수자 찾기에 나섰다.

푸르덴셜파이낸셜은 푸르덴셜 인터내셔널 인슈어런스 홀딩스를 통해 푸르덴셜생명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내년이면 한국 진출 30년을 맞는 푸르덴셜생명의 매각은 미국 본사인 푸르덴셜파이낸셜의 재무 상태 때문에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푸르덴셜생명은 규모만 보면 중소형 외국계 생명보험사에 불과하지만 안정적인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을 보유한 '알짜' 매물로 평가된다. 푸르덴셜생명의 올해 3분기 기준 총자산 20조8133억원으로 생보업계 11위지만 당기순이익은 1465억원으로 6위다. 보험사의 자산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RBC)비율은 515%로 생보사 중 가장 높다.

또 푸르덴셜생명은 국내 시장에 진출했을 때부터 저축성보다는 보장성 위주의 상품을 팔아왔기 때문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한 부담이 적은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매각가는 2조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KB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대형 사모펀드(PEF)가 인수전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KB금융지주는 KB생명을 키울 필요가 있고, 올해 초 금융지주사로 재출범한 우리금융지주는 생보사가 없다.

지난 10월 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더케이손보는 하나금융지주 품에 안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최근 자체적으로 가상데이터를 활용한 실사를 마치고 교직원공제회와 협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직원공제회는 더케이손보의 최대 주주로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교직원공제회는 매각주관사로 삼정 KPMG를 선정했다. 법률 자문은 법무법인 광장이 맡는다.

더케이손보는 영업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교직원이라는 안정적인 고객들을 중

심으로 양질의 계약을 보유하고 있다. 더케이손보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원수보험료 4714억8577만원 중 자동차보험 비중은 3067억1029만원으로 종합손해보험사지만 자동차보험이 주력이다.

특히 종합손해보험 판매 라이선스가 없는 금융지주들에게 있어 충분히 매력적인 매물이다. 지금까지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하나금융이 유일하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말 하나손해보험에 대한 상표등록을 마쳤다. 가격만 협의가 된다면 연내 인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더케이손보 매각가는 15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M&A 시장에서 많은 매물이 거론됐지만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괜찮은 매물들이 나오면서 국내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매각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5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T타워에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최종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민배심원 앞에서 강소기업 기술 과시

'강소기업 100' 최종선정 현장
3단계 평가 통과 80개 기업 참가 선정엔 기업당 최대 182억 지원

"미국이 무화염 촉매 열산화 소각설비(FCO) 등의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를 만족하는 기술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자사가 미국환경보호청(EPA) 규정을 만족하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면서 세계적으로 저회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5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T타워에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최종 선정 대국민 평가가 한창이었다. 반도체 분과에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용 무화염 촉매 방식 가스 스크리버를 만드는 엠에이티플러스의 김동수 대표가 선정심사의위원과 국민심사배심원 앞에서 회사의 기술과 비전을 발표했다.

발표는 공개발표와 질의응답 10분씩 각 기업에 총 20분이 주어졌다. 발표 시간이 3분, 1분 남았을 때 알람음이 울렸다. 다소 긴장한 듯한 김동수 대표의 말이 빨라졌지만, 약 15초를 남기고 무사히 준비한 발표를 마쳤다.

심사위원단은 자료에 필기하는 등 발표 내용을 꼼꼼히 확인했다. 발표 후 선정심사의위원의 날카로운 질문도 오갔다. 반도체 분과 선정심사의위원으로 참석한 안전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전체 매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2%로 꽤 적네요?"라고 묻자 김동수 대표는 "전체 매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부분은 90% 정도"라며 자료 오류 사항을 사과했다.

디스플레이 분과에 참가한 양병태이코니 대표는 발표 말미에 "대기업에서 벗어나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의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진행된 최종평가에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및 기술평가, 심층평가 3단계를 통과한 80개 기업이 참가했다. 최종평가는 ▲기계금속 ▲기초화학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전기전자 1 ▲전기전자 2 등 7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됐다.

이번 강소기업 선정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신산업과 연관성이 높고, 개발이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혁신을 이를 중소기업에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강소기업으로 뽑힌 기업은 향후 5년간 30개 사업으로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기업당 최대 182억원의 지원을 받는다.

강소기업 선정을 주관한 기술보증기금의 박주현 기술평가부 차장은 "강소기업 100 선정 기업은 이달 내로 발표할 예정이며 오늘 참가한 기업의 50~60% 정도가 최종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회계감사 과다수임 안돼... 감사품질 높여야”

‘신외감법’ 시행 3년차 기자세미나
최종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감사인 ‘갑질’ 적발엔 영구퇴출”

신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현재 지정감사제, 표준감사시간제 등 회계개혁이 마무리 단계다. 외감법 시행을 주도했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 품질 제고에 역량을 쏟기로 했다. 회계법인이 과다수임으로 감사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지, 표준감사시간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지 등을 감독할 계획이다.

최종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세미나에서 "한국의 회계개혁은 불분명해 서도 보도하고, 글로벌 빅4회계법인 대표들 모두 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면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은 "현재 시점에서 회계개혁 성공 위해선 회계감사 품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품질확보의 첫걸음으로 회계법인의 과다수임 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과다수임 억제, 일감 정리해야”



지난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자세미나에서 최종경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최 회장은 "올해 내부회계 관리제도, 지정 감사 등이 시행됐다"면서 "회계법인들은 역량을 초과하는 일감을 받았는지 스스로 성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일감이 많다면) 과다수임 억제를 위해서 새로운 회계사를 스카우트(영입)하는 것보다 각자 역량에 맞춰 일감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다수임 억제는 결국 역량을 갖춘 회계사들이 골고루 일감을 갖게 돼 '상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중소회계법인으로 일감이 전달되는 장점도 있다.

최 회장은 "상위 회계법인이 과다수임을 하는 것에 대해 깊게 들여다보고, 이들이 과다수임을 하지 않으면 중소회계법인에 일감이 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회사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프라이빗 어카운턴트' 시장을 활성화하면 중소법인들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과다수임을 감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밝혔다. 회계법인에 속한 회계사 수에 일반적인 근무시간을 곱해 총 감사 시간을 구해보는 것이다.

최 회장은 "100명의 회계사가 있다면 이들이 300일 동안 30만 시간(하루 10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감사 계약과 표준감사 시간을 비교해 30만 시간을 초과했는지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감사인 ‘갑질’엔 영구퇴출 고려”

신외감법의 시행으로 회계 품질 제고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있지만 기업들의 고충은 늘어나고 있다. 지정 감사제,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으로 회계법인이 과도한 감사비를 청구하는 등 '갑질'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가 갑질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표준감사시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과정에서 감사인의 '갑질' 등 부적절한 행위와 위법 행위가 있으면 검찰 고발 등 강력 조치를 통해 탈선 감사인을 영구퇴출 시키겠다"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10월 경상수지 흑자 1년만에 최대치

반도체 부진에 수출은 14.5% 감소

10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78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흑자폭은 1년 만에 최대치였다. 다만 반도체 부진 여파로 수출이 14.5%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9년 10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78억3000만달러로 지난

5월부터 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폭은 지난해 10월(93억5000만달러) 이후 1년 만에 가장 컸다.

다만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년 전(94억7000만달러)보다 16억4000만달러(17.4%) 줄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 가격 하락에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이 줄어들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축소된 영향이다. 상품수지 흑자는 80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10



월(105억2000만달러)보다 흑자폭이 24억9000만달러(23.7%) 줄었다. /김희주 기자

부동산금융 옥죄다... 증권·여전사 PF보증 한도 설정

〈여신전문사〉

금융위 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익스포저 건전성 규제 강화 증권 채무보증한도 100%

앞으로 증권사 여전사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무 보증 취급한도가 제한된다. 부동산 PF대출 시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되는 점을 이용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중소기업대출 여력을 부동산 대출에 활용하는 것도 차단한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확대되고 있는 금융회사의 수익추구를 제한하고 고위험 자산 투자를 줄여 잠재 위험에 대비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5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PF 익스포저에 대한 건전성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손 부위원장은 "국내·외 금융회사, 투자자들이 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두기 위해 때로는 공격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유관기관이 함께 상황을 진단하고 잠재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PF 채무보증 관련 건전성 강화	부동산PF 대출 관련 건전성 강화	부동산PF 리스크 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보증 취급한도 관리 자본규제 및 총당금 적립기준 조정 유동성 리스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PF 대출 확대 유인 제거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스크관리 실태점검 체계 구축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PF익스포저 공시 강화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자료/ 금융위원회

우선 금융위는 우선 증권사·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PF 채무보증 취급한도를 설정한다. 증권사와 여전사의 경우 적절한 한도 관리 수단이 없어 과도한 채무 보증시 유동성리스크와 신용리스크를 촉발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일부 증권사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은 상위 3개사 기준 75~187%에 달한다. 여전사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은 4~176%이다. 자본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한도를 100%로 설정한다. 여전사는 부동산 PF대출 및 채무보증의 합계액을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지금까지 여전사는 감

독규정상 부동산 PF대출을 여신성 자산의 30%로 제한했다. 앞으로는 부동산 PF대출과 부동산 채무보증을 합쳐 30%이내로 제한한다는 의미다.

자본규제와 총당금 적립기준도 조정한다. 증권사는 부동산 PF 채무보증에 대해 신용위험액 산정 시 위험 값을 12%에서 18%로 상향 조정한다. 여전사는 PF채무보증에 신용환산율 100%를 적용해 PF대출과 동일한 비율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한다.

유동성 리스크도 관리한다. 부동산

PF 채무보증은 상당부분은 유동화 증권으로 지급 보증되고 있다.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경우 미매각 유동화 증권을 매입해야 하는 유동성 리스크를 줄인다는 분석이다.

조정유동성 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하는 증권사에 대해 리스크 관리와 점검을 강화한다. 자체적인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유동성 관리방안을 감독당국에 즉시제출한다. 조정유동성 비율이 100%미만으로 하락한 시점으로 6개월 이내에 100%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지 않을 경우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여전사는 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PF채무보증을 포함한 유동성 관리기준도 신설한다.

부동산 PF대출 확대를 유인하고 있는 규제적 이점도 개선한다.

현재 증권사의 부동산 PF대출증가세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주도하고 있다. 자금운용측면에서는 기업신용공

여 취급한도가 확대돼 부동산 PF관련 대출이 가능하다. 리스크관리측면에서도 부동산 PF대출은 신용위험액 산정 시 특례를 적용 받고 있다. 이러한 이점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 PF대출 취급을 늘렸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발행어음 조달자금의 10%를 초과하는 부동산 투자자산은 레버리지 비율에 가산된다. 기업신용공여 추가한도도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확대하고, 기업금융·중소기업대출에서 부동산 관련대출은 제외한다. 부동산 PF대출 시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되는 점을 이용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중소기업대출여력을 부동산 대출에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

손 부위원장은 "고위험이 내재된 고수익 채무증권 투자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건전성 장치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상호금융 가계·자영업 대출 6.4兆 증가

개인사업자 전년비 20% 늘어
모니터링 등 건전성 관리 강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가계·개인사업자 대출이 383조 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 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대출은 20%나 증가했다. 정부는 경기 둔화 등에 따라 가계·개인사업자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2019년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고 가계·개인사업자 대출과 집단대출 관련 동향과 위험 요인을 점검했다.

이날 금융위는 지난해 상호금융권에 대한 가계부채 및 집단대출 관리 강화 등에 힘입어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이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9월 말 기준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302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7조 3000억원(2.3%) 감소했다. 다만 이 영향으로 연체율은 1.17%로 전년(1.20%) 대비 0.5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은 9월 기준 81조 1000억원으로 2018년 말(67조 4000억원) 대비 13조 7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세는 20.3%로 지난해(38.5%)보다 감소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의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한 대출 쏠림 현상도 개선됐다. 지난해 말 42.4%를 기록했던 부동산·임대업 대출비중은 9월 말 41.9%로 0.5%포인트 낮아졌다.

상호금융권 집단대출은 9조 8000억원으로 2018년 말(17조 4000억원)과 비교해 7조 6000억원 감소했다.

나유리 기자

“국민연금, 기업경영 지나친 개입 우려”

한경연
“상장사 10곳 중 3~4곳 주요 주주”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가 716곳에 달하며, 최대주주인 기업도 19곳, 2대주주인 기업도 150곳이나 된다는 조사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공적연금이 여러 상장사 최대주주를 맡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지적했다. 공적 연금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국가가 OECD 회원국 중 14곳에 불과하고, 최대주주인 경

우는 덴마크가 6건, 뉴질랜드도 1건에 불과하단 설명이다.

한경연은 자본시장법상 주식보유 비중을 5%로 본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은 273곳이 해당된다며 투자 기업 중 30~40%에 경영 개입이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가이드라인 도입을 준비중인 점을 들어 국민연금이 기업 지배력을 더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연은 “기업에 대한 지나친 경영 간섭은 관치 논란만 불러오고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하는 만큼, 설립 목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콘츰리

“알알이 툭툭 터지는
목수수(콘)”

프리미엄 치즈 5종의 조화로운 품이에
단짠단짠 콘치즈를 덮었다!

비프츰리

“달달한 스테이크소스의
불향 가득 스모키비프”

한국의 불고기와 멕시코 퀘사디아의
환상적인 퓨전 조합!

콘츰리 피자
₩24,900

비프츰리 피자
₩24,900

본 피자는 L 사이즈 단품으로만 탄생 되었습니다.

신메뉴 2종 L 세트 방문포장 시 16,000원 할인

* (콘츰리 or 비프츰리 + 왕큰후라이드 한마리 = 39,900원 → 23,900원)

☎ 1599-1082

“포인트, 잘 활용하는게 포인트” 카드사 캐시리스 붐

〈비현금결제〉

KB국민 ‘소상공인 포인트 상품’
하나카드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우리카드 포인트 자동사용 서비스



유투이미지

최근카드사가카드포인트를활용하기위한다양한방안을내놓고있다.기존금융서비스와대비해소비자편의와이익이더강화될것으로예상되면서금융소비자들의눈길을끌고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카드의 ‘소상공인 포인트 상품 서비스’가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 서비스는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주에게 수수료를 떼지 않은 매출대금 전액을 유효기간이 없는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일반적으로 카드사는 가맹점에 카드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후 가맹점수수료를 떼고 결제대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가맹점은 이 서비스를 통해 카드매출대금을 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이를 위해 영세 가맹

점주 전용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가맹점주는 적립받은 포인트를 타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역시 카드 수수료는 면제된다.

하나카드는 내년 초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결제계좌와 연동해 발급받아야 했던 기존 체크카드와 달리, 포인트 계정만으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은행 계좌 개설이 어려운 고객(외국인, 미성년자 등)도 간편하게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게 하나카드의 설명이다.

국제브랜드로 카드를 발급하면 별도의 환전이나 해외 이용수수료 없이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고, 단순 포인트 사용시에는 받을 수 없던 추가 적립 및 캐시백 할인 등의 추가혜택도 받을 수 있다.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엔 자동충전을 진행할 수 있고, 체크카드에

30만원 한도 내의 신용 또한 제공해 결제의 편의성을 높였다.

우리카드는 지난 10월부터 포인트 자동사용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우리카드 스마트앱 및 모바일웹에서 사전에 지정해 포인트(위비폴터니, 모아포인트) 금액만큼 국내 온·오프라인가맹점에서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000점의 포인트를 사전등록한 고객의 경우 2만원을 결제할 때 5000점은 포인트로 자동 차감되고 차액인 1만5000원만 결제가 된다.

기존에는 포인트 결제 가능 가맹점을 확인해 방문한 후 직원에게 포인트 사용을 요청해야 했다면, 이 서비스는 국내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별도 요청 없이도 보유 포인트를 이용해 결제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이 같은 비현금결제는 주요한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현금 선호도가 높았던 일본에서도 최근 ‘캐시리스 캠페인’을 통해 비현금결제 비중을 높이고 있다. 올해 10월말 시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편의점·음식점 등에서는 비현금결제를 주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지난 6월 대비 7.8~11.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스마트폰 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병영 여신금융연구원 연구원은 “아직 캐시리스 캠페인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며 관련 제도 정비도 과제로 꼽히고 있으나 일본 내 금융소비자 사이에서 비현금결제 선호도가 상승하는 등 인식개선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IBK기업銀 베트남 진출기업 위한 자산관리 선택

IBK기업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위한 자금관리서비스 ‘IBK e-브랜치(branch) VINA’를 출시했다.

‘IBK e-branch VINA’는 국내의 ‘IBK e-branch’로 베트남에 진출한 현지법인과 국내 모기업을 연계해 통합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베트남 현지 법인은 ‘IBK e-branch VINA’를 통해 ▲베트남 주요은행 계

좌 통합관리 ▲모계좌 입금 ▲현지 기업 내부시스템(ERP)과의 연계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국내 모기업은 ‘IBK e-branch’로 베트남 현지법인의 자금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IBK e-branch’는 계좌 및 카드 관리·지급·수납, 세금계산서 발행, ERP연계 등 전 금융기관에 흩어진 자금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는 통합자산관리 시스템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4일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에 위치한 제4호 국공립어린이집 ‘청송 하나어린이집’ 개원식을 가졌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두번째줄 왼쪽에서 네번째)이 윤경희 청송군수(왼쪽 세번째), 권태준 청송군의회 의장(왼쪽 첫번째) 등 참석한 내외빈 및 원아들과 함께 개원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송 하나어린이집 개원... 농촌 ‘첫 결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4일 청송군과 함께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에 위치한 제4호 국공립어린이집 ‘청송 하나어린이집’ 개원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윤경희 청송군수, 권태준 청송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어린이집을 둘러보며 원아들과 함께 개원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청송 하나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건립되는 하나금융그룹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첫 번째 결실이다. 청송군 파천면 인근은 계속된 아동수 감소로 그간 운영해 오던 민간어린이집이 경영난으로 폐쇄될 상

황이었으나 하나금융그룹과 청송군의 협력으로 매입 후 리모델링을 거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했다. 이로써 자칫 보육 사각지대가 될 수 있었던 지역에 양질의 보육 환경이 조성됐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3월 경남 거제시를 시작으로 4월 충남 홍성군, 11월 서울 강북구에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을 지원했고 명동·여의도·광주·부산에 차례로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했다. 또 전국 46곳의 지역에서 어린이집 건립 절차가 진행 중이며, 내년까지 공립어린이집 90개, 직장어린이집 10개 등 총 100개의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를 이

/홍민영 기자

저축銀 3분기 실적 ‘好’... 누적 순익 9374억

대출금 지난해 말 비 5.8% 증가
대출 늘어 이자익 2000억 이상 ↑

저축은행들이 올해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 늘면서 이자이익이 급증한 덕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7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93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했다. 대출 확대 등으로 이자이익이 2000억원 이상 늘었다.

총자산은 7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6.7% 증가했다.

대출금은 6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8%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신용대출 중심으로, 기업대출은 법인대출 위주로 늘었다. 자기자본은 8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1.8% 증가했다. 순이익 시현 등으로 이익잉여금이 늘었고, 유상증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9월 말 기준 총여신 연체율은 4.2%로 지난해 말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4.6%로 전년

〈주요손익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18.1~12월	'18.1~9월 (A)	'19.1~9월 (B)	증감 (B-A)	증감률
영업손익(A=a+b-c-d)	13,198	10,158	11,422	1,265	12.5
이자이익(a)	41,809	30,985	33,118	2,133	6.9
비이자이익(b)	△3,805	△1,937	△2,458	△521	26.9
비용					
판매및관리비(c)	12,344	8,997	10,010	1,013	11.3
대손충당금전입액(d)	12,462	9,893	9,228	△665	△6.7
영업외손익등(B)	△2,110	△1,660	△2,048	△388	23.4
당기순이익(A+B)	11,087	8,498	9,374	877	10.3

/금융감독원

말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법인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각각 0.1%포인트, 0.8%포인트 높아졌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3.9%로 전년 말 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은 2.0%포인트 낮아진 반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1.1%포인트 높아졌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1%로 지난해 말 수준을 유지했다. 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11.8%로 지난해 말 대비 3.4%포인트 하락했지만 모든 저축은행이 요적립액 100% 이상을 충

족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 자본비율은 15.08%로 지난해 말 대비 0.75%포인트 상승했으며, 규제비율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잠재위험에 대비해 저축은행의 영업 및 건전성 현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특히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과 취급액이 늘고 있는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여신심사와 사후관리 등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우리♡뱅샐’ 손잡고 대출 조회·약정 서비스

〈우리은행·뱅크샐러드〉

우리은행은 뱅크샐러드와 우리비상금대출 한도 및 금리 조회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오는 20일까지 ‘우리♡뱅샐했어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뱅크샐러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서 고객이 직접 우리은행 우리비상금대출의 개인별 대출한도와 금리를 조회할 수 있는 ‘우리비상금대출 금리 확인하기’ 서비스를 지난 18일 오픈했다. 이 서비스가 지난 6월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후 우리은행과 뱅크샐러드는 관련 오픈API 개발을 진행했다. 고객은 뱅크샐러드 앱에서 대출한도와 금리를 조회한 후, 위비뱅크 앱과 연동해 대출을 약정할 수 있다.



/우리은행

이번 이벤트는 뱅크샐러드 앱에서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고, 위비뱅크 앱에서 대출을 실행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매일 추첨을 통해 선정된 당첨자 5명에게 5만원 상당의 빙스 외식상품권을 제공한다.

/홍민영 기자

NH농협, 금융권 최초 ‘핀테크 개발자 센터’

NH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은 금융권 최초로 핀테크 개발자 플랫폼 센터인 ‘NH핀테크 오픈플랫폼 개발자 센터’를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NH핀테크 오픈플랫폼 개발자센터’는 개발자들이 금융서비스 앱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 센터다. API 개발가이드와 예제소스, 오류코드, 금융API 등을 제공하며, 웹과 모바일에서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핀테크 기업을 비롯해 대학생이나 일반인들도 핀테크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25개의 API 테스트 도구를 제공한다.

/안상미 기자

kt

“지니야 우리
민준이 칭찬해줘!”



“우리 **민준**이 치카치카 정말 잘하네!”

핑크퐁의 목소리로 우리아이의 바른 습관을 길러보세요



GiGA Genie × 핑크퐁

핑크퐁 칭찬하기

스마트한 칭찬 육아법

핑크퐁의 목소리가 직접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며
칭찬해주거나 타일러 줄 수 있는 기가지니 핑크퐁 칭찬하기

Copyright © Smart Study Co., Ltd. All Rights Reserved.

GiGA Genie



5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바이오매스 발전, 미해결 과제는 무엇인가' 세미나에서 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해동 계명대학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김수지 기자

바이오매스 발전, 미해결 과제 주제 세미나

“환경 도움 안 돼” vs “보완·개선”

김수진 기후솔루션 연구원
“탄소 중립까지 최소 70년 걸려”

김재식 한국중부발전 사장
“생산·소비, 지속가능한 방법 전환”

재생에너지 '바이오매스' 발전의 현 주소를 다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바이오매스 발전, 미해결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바이오매스의 발전에 대한 갑론을박과 함께 새로운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바이오매스가 실질적으로는 환경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주장과 외려 아직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속가능한 방법을 찾아 그 발전량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공방을 이뤘다.

김수진 기후솔루션 선임연구원은 바이오매스와 관련해 통상적으로 하는 오해가 몇 가지 있다며 서두를 열었다. 그는 '바이오매스가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바이오매스 발전은 실제 이론적으로 석탄보다 더 높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제로)로 만

드는 '탄소 중립'까지 최소 70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매스 혼소발전의 경우,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중지가 침해할 발전사업자의 법적 이익이 크지 않다. 이를 고려해 바이오매스의 REC 발급 전면 중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바이오매스 발전의 전 과정에 대한 이산화탄소 평가 기준 도입 등을 통해 기후적 측면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자격요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오매스 혼소발전은 석탄 발전에 폐목재 등을 섞어 태우는 방식을 의미한다.

반면 바이오매스 발전이 갖는 아직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앞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재식 한국중부발전 부장은 "바이오매스 발전은 다른 재생에너지원과 달리 화석연료와 같은 방식으로 연소돼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질소산화물이나 먼지 같은 대기오염물질도 배출한다. 이런 특징이 바이오매스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면서도 "환경성에 대한 논쟁을 최소화하고 RE100 등 최근의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매스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과정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LG 그램 17’ CES 혁신상 2년 연속 수상

LG전자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 인정

LG전자가 대화면과 초경량을 모두 갖춘 'LG 그램 17'을 앞세워 대화면 노트북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LG전자가 지난해 말 처음 선보인 LG 그램 17은 올해 'LG 그램' 국내 매출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LG 그램 17은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아 'CES 혁신상'을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했다.

2020년형 LG 그램 17(모델명: 17Z90N)은 초고해상도 WQXGA(2560×1600)를 구현한 17형(43.1cm) 대화면 'IPS 패널'을 탑재했다.

이 제품은 화면부와 조작부를 연결해주는 힌지(접힘) 부위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해, 2019년형 제품 대비 세로 길이가 3mm 줄었다. 배터리 용량은 기존 72와트시(Wh)에서 80와트시로 키웠으며, 무게는 1350g이다.

이 제품은 키보드의 우측 숫자키 배열을 기존 3열에서 일반 키보드와 동일한 4열로 변경했다. 4열 숫자키 배열은 엑셀업무 등을 할 때 편리하다.



LG 트윈타워에서 모델들이 대화면, 고성능, 휴대성까지 겸비한 2020년형 'LG 그램'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또한 LG 그램 17은 인텔 10세대 프로세서(아이스레이크)를 탑재했다. 특히 그래픽 성능이 기존 대비 약 2배 향상돼 4K 영상, 사진, 게임 등을 부드럽게 보여준다. 확장 슬롯을 이용해 저장장치(SSD)와 메모리(RAM)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 이 제품은 미국 국방성 신뢰성 테스트의 7개 항목(충격, 먼지, 고온, 저온, 진동, 염수, 저압)을 통과해 내구성도 우수하다.

LG전자는 LG 그램 17을 포함한 LG 그램 신제품(모델명: 15Z90N, 14Z90N) 예약판매를 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진행한다. /구서윤 기자

카카오-대한항공 MOU

“항공권 결제·탑승 등 모바일 혁신”

결제·탑승 전 과정 모바일 최적화
카카오 AI 활용 효율성·생산성 ↑
새로운 가치 창출 위해 긴밀히 협력

카카오와 대한항공이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사는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카카오 판교오피스에서 카카오 여민수 공동대표, 배재현 부사장과 대한항공 우기홍 대표, 하은용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플랫폼 ▲멤버십 및 핀테크 ▲커머스 ▲콘텐츠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가 보유한 역량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데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양사는 항공권을 찾는 과정에서부터 결제, 탑승에 이르는 전 과정이 모바일 환경에서 더욱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카카오 공동체가 보유한 막강한 콘텐츠를 대한항공 기내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인플라이트 엔터테인먼트 사업 협력을 추진하고, 커머스 플랫폼 협업 및 양사가 보유한 상품의 판매 확



카카오와 대한항공이 고객 가치 혁신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협력 MOU를 체결했다. (왼쪽부터)대한항공 하은용 부사장, 대한항공 우기홍 대표이사, 카카오 여민수 공동대표, 카카오 배재현 부사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카카오

대를 위한 상호 협력 등 구체적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 카카오의 고도화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항공 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 수준의 역량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양사가 협력을 약속한 만큼, 이용자들에게 더 편리하고 혁신적인 항공·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항공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대한항공과 긴밀하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는 "카카오와의 제휴를 기반으로 카카오의 우수한 플랫폼과 콘텐츠를 대한항공의 고객 서비스, 항공권 판매,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해 고객 가치를 높일 예정"이라며 "항공사와 ICT 기업의 사업 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정의선, '2019 자동차인' 혁신상 수상... 조직·기업문화 선도

〈현대그룹 수석부회장〉

48개 회원사 기자 부문별 후보추천
미래기술 개발·글로벌 인재 영입 성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한국자동차기자협회의 '2019 자동차인' 산업부문 혁신상을 수상했다.

5일 한국자동차기자협회에 따르면 '2019 자동차인' 상은 올 한 해 동안 산업 및 홍보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것으로, 올해 신설됐다.

'2019 자동차인' 상은 ▲산업부문 혁신상 ▲산업부문 공로상 ▲산업부문 특별상 ▲홍보부문(인하우스/홍보대행사)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한국자동차기자협회 48개 회원사 소속 기자들로부터 각 부문별 후보를 추천 받은 뒤, 최종 후보를 대상으로 한국자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동차기자협회 이사회 및 확대임원회의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올해 산업부문 혁신상 수상자로 선정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수소연료전지차, 자율주행기술 등 혁신적인 미래 자동차 기술과 디자인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기울이는 한편, 글로벌 인재를 영입하고, 조직 및 기업 문화 혁신을 이끄는 등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부

문 혁신상을 수상하게 됐다.

2019 자동차인 산업부문 특별상은 쌍용자동차 노사에게 돌아갔다. 쌍용차는 어려운 경영 여건속에서도 노사가 힘을 합해 체질 개선과 선제적인 자구 노력을 기울여왔고, 특히 노사간에 인내하고 상호 노력하여 지난한 과정 끝에 해고자 전원 복직을 이뤄냈다. 또한 노사가 재기의 도약을 위해 품질 혁신 노사 공동 TFT를 발족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됐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산업부문 공로상을 받았다. 정 회장은 매일 자동차산업포럼을 개최해 환경, 안전 규제 등 자동차 업계의 현안을 주제로 대화와 토론의 장을 이끌고, 포럼의 결과를 실제 정부에 건의하는 등 자동차 산업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성운 기자 ysw@

SKT, 동반위와 '임금격차 해소협약' ... 협력사에 7543억 지원

‘뉴 ICT 프라이드 어워즈’ 개최

SK텔레콤은 서울 광진구 그랜드 위커히 호텔에서 우수비즈니스파트너사와 함께 하는 '뉴 ICT 프라이드 어워즈'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SK텔레콤은 동반성장위원회와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하고 3년간 총 7543억원 규모를 지원키로 했다.

'뉴 ICT 프라이드 어워즈'는 SK텔레콤이 우수 파트너사와 한 해의 성과 및 내년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다. 2006년부터 14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이 행사는 올해 '파트너스데이'라는 기존 명칭에서 '뉴 ICT 프라이드 어워즈'로 변경됐다. 초대 대상도 SK텔레콤 파트너사에서 SK ICT패밀리사의 파트너사로 확대했다.

SK텔레콤은 인프라, IoT, AI, 미디어, 보안, 커머스 등 SK ICT패밀리사의 주요 사업 영역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낸 총 38개 우수 파트너사에 인증패와 포상을 전달했다. 해당 파트너사에는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

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우수 파트너사에는 SK텔레콤과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함께 이뤄낸 주역인 5G 분야 파트너사가 대거 포함됐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3년간 총 7543억원 규모의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지원 프로그램은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금융지원(동반성장펀드, 경영안정자금) 등을 아우른다. /김나인 기자 skni@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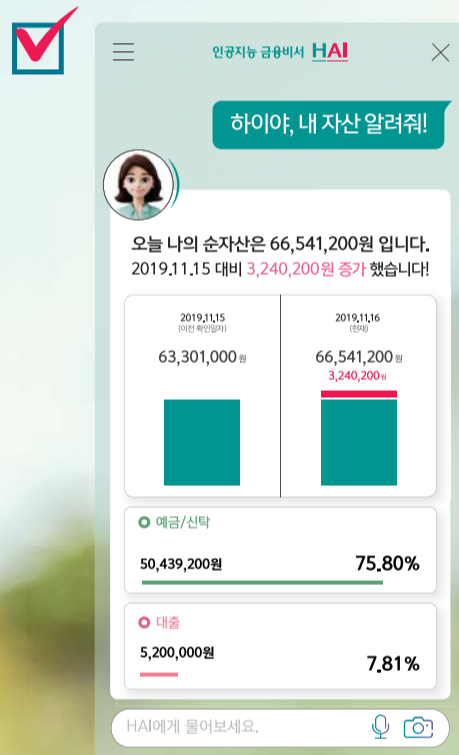
미래금융 위시리스트

- 나도 금융비서가 있으면 좋겠다
- 내게 꼭 맞춘 자산관리를 받고 싶다

손님의 생각 하나하나를 모아 더 스마트한 금융을 만듭니다

기술의 능력이 커질수록 손님의 할 일은 줄어들기에
하나금융그룹은 더 스마트한 미래금융을 만들고 있습니다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투자 성향을 분석하여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자산관리 서비스



음성 인식 챗봇을 통해 Banking 서비스를 누리는
인공지능 금융비서



노른자위땅 공장 내줘야하는 삼표... 대체부지 '골머리'

SAMPYO

풍납토성·서울숲 복원에 부지 필요
송파구, 544억주고 소유권 이전
보상금 산정 절차 의문, 생존대책도

서울 노른자위에 레미콘 공장을 보유하고 있던 삼표가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서울밖으로 내몰릴 위기다.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공장은 풍납토성 복원 때문에,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공장은 서울숲 추가 조성 때문에 각각 공장부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서다.

그럼에도 레미콘 산업의 생명인 대체부지 마련은 요원한 상황이다. 레미콘 차량의 경우 일반적으로 1시간~1시간 반 정도의 거리가 공급 반경임을 감안할 때 기존 영업권을 지키기 위해선 '인(in) 서울'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남비(Not In My Back Yard) 현상' 때문에 서울안에, 또는 서울과 최단거리내에 레미콘 공장터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



서울 성수동에 있는 삼표의 레미콘 공장 전경.

황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역의 레미콘공장들은 삼표의 풍납동공장, 성수동공장, 그리고 천마콘크리트의 세곡동공장(강남구), 신일씨엠의 장지동공장(송파구) 등이 있다.

대형레미콘사인 삼표가 4개 공장 중 절반을, 그것도 가장 요지에 레미콘 공장을 운영하며 서울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레미콘을 공급해왔다.

삼표 풍납공장의 경우 1일 생산량은 3000루베(1루베=1㎥), 성수공장은 이보다 2배 많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삼표는 이같은 지리적 장점에 현대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부지에 계획하고 있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도 상당한 물량의 레미콘을 공급기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5층 규모로 지어질 GBC는 연면적이 91만㎡로 80만㎡였던 제2롯데월드보다 규모가 크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GBC는 40여 만대 정도가 동원됐던 제2롯데월드보다 많은 50만대 이상의 레미콘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에 있는 삼표의 2

개 레미콘 공장이 모두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앞서 이달 초 송파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서울시지토위)에서 삼표산업의 풍납공장에 대한 수용재결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지토위에서 산정한 공장 보상금 544억원을 주고 소유권을 삼표에서 송파구로 이전 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당초 송파구가 책정한 보상액 540억원보다 0.8%가량 늘어난 액수라는 점도 덧붙였다.

앞서 삼표의 풍납공장 부근에서 다량의 백제 토기와 건물터, 도로 유적 등이 발굴되면서 풍납토성이 백제 한성도읍기 왕성으로 추정돼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2006년부터 송파구는 삼표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삼표는 공장 이전 등을 비롯해 풍납토성 복원 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하지만 풍납공장에 종사하고 있는 레미콘차주들이 비대위를 구성해 반대하고 있어 제대로 된 보상금 산정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들의 생존권에 대한 대책도 추가적으로 마련돼

야 하기 때문에 비대위, 구청과 추가 협의를 긴밀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풍납공장은 현재 70~80대의 레미콘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레미콘차주는 대부분 개인 사업자들이다.

성수공장도 오는 2022년 6월까지 공장 이전을 끝내야 한다.

앞서 서울시는 삼표 성수공장의 땅주인인 현대제철과 레미콘 공장 이전을 합의했다. 성수공장 부지는 현대제철이 소유한 2만2924㎡와 국공유지 5032㎡로 구성돼 있다. 삼표산업은 그동안 현대제철 땅을 빌려 레미콘공장을 운영해왔다. 서울시는 문을 닫게 될 성수공장에 공원시설을 조성해 서울숲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장문을 닫고 이전해야 할 삼표가 대체부지를 알아봐야 하는데 아직까지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삼표가 이들 공장문을 닫고 새로운 자리를 마련한다고 해도 활동 반경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기존 영업권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한화그룹, 국악부터 영화작업까지 재능나눔

한화그룹이 우리 주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예술재능 기부 봉사활동인 '한화예술더하기 재능나눔 Arts Plus'(이하 '재능나눔 아트 플러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재능나눔 아트 플러스는 한화그룹과 한국예매나협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창의예술교육지원 사업인 '한화예술더하기'에 참여한 학생들이 전문 예술강사들과 함께 올 한해 동안 배운 문화예술 재능을 이웃들과 나누고 공유하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이다. 학생 및 전문 예술강사, 한화그룹 임직원 봉사자 등 500여명이 참여하며, 지역주민과 복지기관 이용자 등 약 6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협력 복지기관 및 학교, 문화예술회관 등 전국 30여 곳에서 12월



재능나눔 아트 플러스 프로그램 참가 학생과 한화그룹 사회봉사단 임직원이 희귀난치성질환 아동들과 함께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고 있다.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가야금 연주, 국악&합창 퓨전콘서트, 창극 등의 공연 발표를 비롯해 캘리그래피, 사진스튜디오, 영화 시나리오 작업 등 체험프로그램 진행과 디지털 미디어, 셀프 퍼블리싱(독립출판) 관련 전시회도 개최한다. /양성운 기자

SK실트론, 6억달러 수출의 탑 수상

SK실트론이 수출액 6억달러를 돌파하는 공을 인정받았다.

SK실트론은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6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6억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SK실트론은 지난해 약 1조5000억원 매출 중 절반을 해외에서 거두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 투자를 통해 수출을 확대 중이며, 3분기에는 지역별로 중국 19%, 미국과 대만 각 9%, 기타 14% 등으로 수출 증대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인텔과 마이크론, TSMC 등 글로벌 주요 반도체 업체를 포함하고 있다. 실리콘 웨이퍼를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 듀폰의 웨이퍼 사업을 인



SK실트론은 6억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수하는 등 연구 개발과 투자를 지속해서 성장을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SK실트론 관계자는 "앞으로도 SK실트론은 반도체 제조기업간 협력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고객과의 비즈니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강력 퍼포먼스는 기본... 럭셔리한 외관



더 뉴 아우디 A6

지난달 판매 1000대 넘기며 상위권 8세대 완전 변경 모델, 두 가지 라인 전장·전폭, 경쟁차량 중 가장 넓어

올 하반기 국내 수입 세단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8세대 아우디 A6의 매력을 정리하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그동안 아우디 A6를 기다려온 소비자들의 갈증을 충분히 해결해 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매력을 바탕으로 신형 아우디 A6는 국내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 지난 10월 새롭게 출시된 더 뉴 아우디 A6는 고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경쟁 모델인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와 BMW 5시리즈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지난달 국내 수입 차 판매에서도 1000대를 넘기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더 뉴 아우디 A6의 시승을 통해 차량의 매력을 분석했다. 시승 구간은 서울 여의도를 출발해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를 경유해 돌아오는 약 100km에서 진행했다.

신형 아우디 A6는 8세대 완전 변경 모델로 'A6 45 TFSI 콰트로', 'A6 45 TFSI 콰트로 프리미엄' 두 가지 라인으로 나왔다. 신형 A6 차체 크기는 전장 4950mm, 전폭 1885mm, 전고 1460mm에 휠베이스(축간거리) 2924mm로 기존 세대보다 전장과 전폭, 휠베이스가 모두 늘어나 넓은 실내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전장과 전폭은 경쟁차량(E클래스·5시리즈) 중 가장 길고 넓다.



더 뉴 아우디 A6 45 TFSI 콰트로 주행 모습.

국내에 판매하는 신형 A6 모든 트림에는 'S 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를 기본 적용했다. 전면 그릴이 더 커졌고, 범퍼와 디퓨저 등도 더 역동적인 모습을 갖췄다.

실내는 다양한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했다. 운전자 선호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디지털 계기판을 비롯해 대시보드 중앙 공조장치 하단 위아래 2개의 디스플레이가 자리했다. 터치 방식에 햅틱 기능을 접목해 누를 때마다 운전자에 피드백을 전달해 준다. 특히 공조장치는 스마트폰 앱 위치를 이동하는 것처럼 운전자의 스타일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주행 성능은 뛰어났다. A6는 2.0L 직렬 4기통 가솔린 직분사 터보차저(TFSI) 엔진 및 7단 S 트로닉 자동변속기를 탑재해 최고출력 252마력, 최대토크 37.7kg·m를 발휘한다. 아우디 고유의 풀타임 사륜구동 시스템인 콰트로를 적용했으며 제로백은 6.3초로 민첩하다. 고속 구간에서의 가속은 경쾌했다. 특히 아우디 고유의 풀타임 사륜구동 시스템인 콰트로로 네 바퀴에 고르게 힘을 전달해줘 커브에서도 스피드 없이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다.

풍절음 등 소음은 물론 노면 진동도



더 뉴 아우디 A6 45 TFSI 콰트로 실내 모습.

느껴지지 않았다. 기존 4스포크 방식에서 3스포크로 바뀐 스티어링 휠은 도심 주행에서 편안한 주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 하차경고 시스템과 교차로 보조 시스템 등이 적용된 '프리센스 360' 등 최첨단 안전 사양을 적용해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배려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시간 360도 카메라는 주차나 좁은 골목길 주행에 부담을 최소화 해준다.

가격 경쟁력도 충분히 보인다. 신형 A6 가격은 45 TFSI 콰트로 프리미엄 7072만4000원이다. 경쟁 모델인 벤츠 E 300 4MATIC(7970만~8060만원), BMW 530ixDrive(7470만~8030만원)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

/양성운 기자 ysw@

매일 이자가 착착... 큰 혜택에 '증권사 체크카드' 인기

KB·교보·SK증권 등 13곳 출시

KB증권 투자자면 최대 2.5% 수익
교보증권 전 학원업종 10% 할인
한국투자증권 사용액 0.3% 캐시백
유안타증권 ATM·CD 입출금 무료



KB증권 (윗쪽)과 유안타증권 체크카드 라인업. /각사 홈페이지

증권업계가 잇따라 자체 브랜드 체크카드를 선보이고 있다. 증권사 체크카드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연동되기 때문에 돈만 넣어둬도 매일 이자가 붙는다는 것이 장점이다. 전문 카드사 못지 않은 혜택도 인기를 끄는 요인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당국에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을 등록한 증권사는 총 13곳이다. 이 가운데 자체 브랜드 체크카드를 출시한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DB금융투자, 유안타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9개사다. 한화투자증권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자체 체크카드 발급을 준비하고 있다.

증권사의 자체 브랜드 체크카드가 허용된 것은 지난 2013년 7월부터다. 신용카드 대비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고, 세액 공제 혜택이 큰 체크카드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였다.

가장 먼저 체크카드 출시에 나선 증

권사는 KB증권이다. 현재 통신티, 포인트 등 혜택별로 4개의 카드 라인업을 갖췄다.

이중 'KB증권 에이블(able) 아이맥스' 카드는 KB증권 계좌로 투자를 하는 고객에게 최적화돼 있다. CMA형 선택 시 당월 카드 사용실적의 3배까지 CMA 기본 수익률(최대 2.5%)이 추가 제공된다. 100만원을 사용했다면 300만원 예치금액까지 기본 수익률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 금융상품형 선택 시 금융상

품 가입금액 만큼 체크카드 사용실적에 대해 추가 수익률을 제공한다.

교보증권의 자체 체크카드인 '윈케이'(Win. K)는 교육에 특화돼 있다. 국내 전 학원업종 결제 시 10% 할인(월 1만원 한도), 서점, 어학시험 응시 시에도 10% 할인(월 5000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9월 처음으로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을 허가받고 체크카드를 내놨다. '더모아 체크카드'는 전월 사용실적과 상관없이 국내 가맹점 어디에서나 사용한 금액의 0.3%를 최대 월 1만원까지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카드 사용이 많은 대형마트와 커피전문점 이용액의 경우에는 5~7% 캐시백이 월 1만원까지 추가로 제공된다.

유안타증권은 4개 자체 체크카드 모

두 편의점 현금지급기(ATM), CD 입출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넣었다. 또 '유안타 Stock+ 체크카드'는 주식 약정별로 카드사용금액의 최대 1% 캐시백을 제공한다.

증권사들이 자체 체크카드 발급에 나서서 이유는 '고객확보'를 위해서다.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증권사의 CMA 계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고객 유인 효과가 있다. 자연스럽게 투자 상품과 연결도 가능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해당 증권사로 금융투자를 할 경우 고객들은 증권사 자체 체크카드 사용으로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신규 고객을 유입하고, 기존 고객들에게도 더 혜택을 주고자 체크카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지난 4일 열린 '한숲 파트너스 데이' 행사에서 배원복 대림산업 대표(왼쪽에서 열두번째)와 우수 협력회사 대표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림산업

대림산업 '한숲 파트너스데이' 행사 개최 장기적 상생으로 협력사 체질강화

대림산업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한숲 파트너스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대림산업은 '협력회사의 성장이 곧 대림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 협력회사의 체질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행사에는 배원복 대림산업 대표이사를 비롯해 200여개의 주요 협력회사 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대림은 협력회사 가운데 한해 동안 가장 협력관계가 뛰어난 19개 회사를 '한숲 베스트 파트너스'로 선정했다. 이 회사들에게는 향후 1년간 신규 계약에 대해 계약이행보증요율을 50% 감면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의 재무적

부담이 경감되고 추가적인 보증 여력이 확보돼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림산업은 임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동반성장몰을 건설사 최초로 도입했다. 동반성장몰은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이다. 대림은 행사에 참석한 모든 협력회사에 동반성장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0만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또한 2019년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으로 선정된 산악인 엄홍길 대장을 초청해 '불굴의 도전정신'을 주제로 한 인문학 강연도 이어졌다. 이어진 만찬에서는 대림산업과 협력회사간의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정연우 기자 ywj964@

영·용·강·은 '서울 신흥주거타운' 부상

(영등포·용산·강북·은평구)

영등포 '신길뉴타운' 교통 편리
대형사 6곳 6993가구 공급 마쳐
3구역 포스코 더샵 316가구 분양

서울 영등포·용산·강북·은평구 등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촌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뉴타운 개발로 신흥 주거타운으로 부상하는가 하면, 재건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5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영등포(신길뉴타운), 용산(효창동 일대), 강북(미아동), 은평(녹번동) 등에서 대규모 아파트촌 조성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이들 지역은 서울 내에서도 여의도, 광화문, 강남권 등 주요 도심과 20~30분대 거리다. 시공능력평가 10위권 내외의 브랜드 건설사가 건설한 아파트가 밀집한 것도 눈길을 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은 영등포 신길뉴타운이다. 일대는 신평역·보라매역(7호선) 이용이 편리하며, 신길역(12호선), 영등포역(1호선) 등이 있다. 타임스퀘어, 신세계·롯데·현대백화점, IFC몰 등의 대형 유통시설도 가깝다.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사가 6곳에서 6993가구가 분양을 마

(서울 新 아파트촌 내 신규 분양)

지역	단지명	총가구수	시공사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 파크프레스티지	799	포스코건설
용산구 효창동	효창파크뷰데시앙	384	태영건설
강북구 미아동	꿈의숲 한신더휴	203	한신공영

쳤으며, 향후 1만여 가구의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다음은 서울 효창공원 일대다. 업무시설이 몰린 공덕~서울역~용산 사이에 위치한 효창공원앞역(6호선, 경의중앙선)도 도보권이다. 최근 효창공원 일대 20만㎡가 서울시 '중심지형 도시재생지역(역사문화 특화형)'으로 선정됐다. '효창파크 KCC스웨첸', '용산 롯데캐슬 센트포레' 등이 최근 입주를 마쳤다.

강북 미아동 일대도 신규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며 길음~미아~장위로 연결되는 대규모 주거타운 조성이 한창이다. 미아사거리역(4호선)을 기준으로 서쪽은 약 2만여 가구의 길음 뉴타운, 동쪽 꿈의숲 인근에도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은평구 녹번동 일대도 녹번역(3호선)을 끼고 응암 1·2구역, 녹번 1구역 등에서 재개발로 1만여 가구의 아파트촌이 조성 중이다.

이 지역에서 마지막 아파트분양으로 신길뉴타운에선 3구역에서 포스코건설이 이달 '더샵 파크프레스티지' 799가구 중 59~114㎡ 316가구를 일반공급한다. 전 세대 남향위주로 일부 세대에는 개방형 발코니가 적용되며, 4베이 특화평면도 선보인다. 84㎡ 이상의 세대는 거실과 주방에 아트월을 적용한 다이닝 특화를, 일부 타입의 세대에는 현관 창고장, 울인원 드레스룸(옵션) 등이 제공된다.

미아동에서는 한신공영이 '꿈의숲 한신더휴' 55~84㎡, 117가구에 대한 계약을 16일부터 3일간 진행한다. 단지 바로 옆에는 서울에서 4번째로 큰 북서울 꿈의숲(약 66만㎡)이 자리한다.

효창동에서는 태영건설이 '효창파크뷰 데시앙' 384가구 중 45~84㎡ 78가구에 대한 당첨자 계약을 16~18일 진행한다. /이규성 기자 peace@

한투증, 베트남 법인 파인트리증권 출범

"베트남 금융발전 위해 노력할 것"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4일 베트남 법인 'Pinetree(파인트리) 증권'을 공식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파인트리증권의 개소식을 축하하기 위해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 베트남 증권위원회, 호치민거래소, 하노이거래소 등 정부 유관 기관과 베트남 소재 금융회사 등 약 100여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는 "한

화투자증권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파인트리증권이 베트남의 디지털 금융시장 발전에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술력과 자본을 아낌없이 지원해 파인트리증권이 베트남을 대표하는 금융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은 올해 4월 HFT증권 인수 후 2025년 넘버원 동남아 디지털 금융사로 도약하기 위해 파인트리증권으로 사명을 바꾸고 조직을 재정비했다. /손영지 기자

KB證-中 중태證 M&A거래·자금조달 업무협약

KB증권은 지난 3일 중국의 중태증권과 한·중 기업 간 인수합병(M&A) 및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국 산동성이 서울에서 개최한 '한·중 산동성 개방 강화 교류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중태증권은 중국 내 국내총생산(GDP) 3위의 산동성이 관리하고 있는 유일한 지방정부소유 증권사다. 올 상반기 기준 총자산 25조2000억원, 자기자본 5조7000억원, 관리자산(AUM) 약 180조원에 달한다.

KB증권은 지난해부터 중국 SISAN 그룹의 한국 신성FA M&A(1억 달러) 자문, 중국기업의 김치본드·아리랑본드 발행을 주관해왔으며, 최근 중국 최대 항공사인 동방항공의 아리랑본드 발행을 대표주관하는 등 부채자본시장(DCM) 역량을 글로벌 시장으로 넓혀가고 있다.

본 업무협약을 통해 산동성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도가 높고 우량한 국유기업들에 대해 포괄적인 투자은행(IB)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KB증권의 IB역량을 글로벌화하고, 새로운 글로벌 사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KB증권 본사에서 KB증권 김성현 대표이사(왼쪽)와 중태증권 리 웨이 회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증권

업 모델을 구축하는 성과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영지 기자

내년 '반도체株 주목'... IT 업고 2400까지 반등

전문가 2020 증시 전망

은행·철강 제외 대부분 '호재' 영업익 개선폭 '반도체' 비중 40%

1분기 美연준 자산 사상 최대 전망 美 대선 분위기 따라 증시 요동칠 듯

증권업계가 바라보는 내년 증시 전망은 밝다. 경제는 올 4분기를 저점으로 내년부터 반등을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정보기술(IT) 업종의 긍정적인 약진이 코스피 지수를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여전히 우려되는 점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정치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5개 증권사(NH투자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는 내년 코스피가 2400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대신증권은 내년 코스피 지수가 2480포인트까지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현재 지수와 비교해서 20% 가량 오를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 IT 분야 약진 기대

내년 코스피 상승을 이끌 업종은 무엇보다 IT가 꼽히고 있다. 5개 증권사 모두 추천 업종으로 반도체 등 IT 업종을 꼽았다.

내년 코스피 상장사 실적 개선의 40%를 반도체 업종이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오

〈증권사 리서치센터 2020년 투자전략〉

증권사	유진투자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코스피 밴드	2,080~2,430	1,900 ~ 2,480	~2400	2,000~2,400	2,000~2,400
기회	①2019년 주요국 금리인하 효과 ②IT 신제품 사이클 ③미중 관세갈등 진정	미중 간의 점진적인 관세율 인하	①연준 통화부양 정책 카드 ②미중 무역 갈등 소강 국면 진입	①소.부.장. 투자지원 등 투자활성화 유도 ② 인덱스의 제한적 상승으로 중소형주 투자관심 확대 ③ 경기침체 우려 완화	2019년 주요국 금리인하 효과 및 자산매입 재개
위험	미국 대선 이후 변곡점 발생 가능성	미중 패권전쟁 글로벌 부채리스크	미국 민주당에서 반자본주의 성향의 후보가 급부상할 경우 2020년 실적 전망의 하향 조정폭이 커질 때	위안화 움직임	국내 주식 비중 줄이는 국내 연기금
추천종목	반도체/무선통신기기/건강관리/화장품	IT(반도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와 시클릭(조선, 에너지, 화학)	반도체, OLED, 미디어/엔터(한류)	IT 소.부.장 관련 산업	반도체, 은행,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중국 관련 엔터, 미디어, 호텔/레저
투자전략	신흥국보다 선진국이 유리	대형주 비중 확대, 성장주, 그 중에서도 차별적인 성장매력, 수요요멘팀이 존재하는 업종만이 주목받을 전망	고PER와 저PBR주에 관심.	중국 내수소비관련 산업, 기대수익률이 높은 미드캡, 스몰캡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	미국과 중국 주식, 하이일드, 구리 자산

는 2020년에는 은행과 철강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영업이익 개선 폭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이상이다"고 말했다.

외국계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 역시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종전 '시장 비중'(market weight)에서 '비중 확대'(overweight)로 상향조정했다. 근거는 2020년 글로벌 경기 회복과 기술 하드웨어 분야에서의 실적 개선을 꼽았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한국의 주당순이익(EPS) 증가율은 올해 -33%에서 내년 22%로 반등할 것"이라며 메모리 가격 안정화와 DRAM·낸드(NAND) 재고 정상화, 5세대 이동통신(5G)

수요 증가 등이 실적 회복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벌 은행들이 양적완화 기조와 더불어 자산매입을 시작한 것도 국내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나면 달리는 약세를 보인다. 이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한국과 같은 신흥국에 호재다.

곽현수 신한금융투자 투자전략팀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은 2019년 하반기부터 자산매입을 재개했다"면서 "내년 1분기 어느 시점쯤 총 자산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과거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자산 매입을 시행했을 때 달리는

약세흐름이 뚜렷했다. 지난 2년간 강세흐름이 끝날 것"이라며 "약달리는 코스피에 특히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미국과 중국이 변수

역시 코스피 방향은 미·중 무역협상의 방향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내년에는 중국의 경기부양, 미국의 대선이 있는 만큼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봤다.

다만 미국 대선 분위기에 따라 국내 증시가 또 한 번 요동칠 것으로 예상됐다. 정권 교체가 현실화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흔들리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어서다.

오태동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

은 "월가에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엘리자베스 워렌이 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 그는 IT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해체, 조세 피난처 단속 등 반자본주의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워렌의 지지율이 높아질수록 주식시장의 불안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위안화의 방향도 주시해야 한다. 현재 미·중 무역협상이 실패에 그친 후 위안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3분기 중국 성장률이 27년만에 6%에 그쳐 성장동력이 약화된 탓도 크다. 향후 국내 증시는 위안화의 방향에 결정될 전망이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위안화 약세가 2020년 이후로도 계속되고 확대되면 가급적 주식을 포함한 위험자산의 투자비중을 줄여야 한다"면서 "코스피 2600 탈환에 대한 희망적 시나리오는 위안화가 안정되고 6위안대 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코스피가 2400포인트까지 상승한다고 해도 주가수익비율(PER) 부담 우려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만큼 상장사의 이익 성장도 기대되고 있어서다.

정보제공업체인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194곳의 내년 실적 전망치를 취합한 결과 매출액은 2049조 1199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5.6%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163조 8974억원으로 27% 늘어날 전망이다. 조사 대상 기업의 90%에 육박하는 172곳이 작년보다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손업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망 이용료 갈등' 가이드라인 실효성 의문

정부,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연내 확정 업계 "사업자간 협상, 해소 불가능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포함돼야"



방송통신위원회 반상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이 4일 망이용계약가이드라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김나인 기자

망 이용료를 두고 국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국내 사업자만 옥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이후 논의과정을 거쳐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반상권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전날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동영상 서비스가 발달하는 5G 시대에는 트래픽 유발이나 망 이용과 관련 민감한 사업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최근 망 이용계약을 두고 ISP와

국내의 CP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2017년 자사 서버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이용자의 접속속도를 떨어뜨렸다고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지난달에는 SK브로드밴드가 글로벌 OTT 사업자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 사용에 대한 갈등을 중재해달라고 재정 신청을 했다. 트래픽 관리 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넷플릭스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이드라인의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계약 내용만 수용할 것을 강요 ▲ 불합리한 사유 들어 계약 지연하거나 거부 ▲ 제3자와의 인터넷망 이용계약 체결 또는 거부할 것을 요구 ▲ 제3자와 공동으로

상대방에 부당하게 경쟁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외 역차별, 글로벌 CP의 망 이용대가 회피 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간 협상만으로 이를 해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번 가이드라인과 같은 정부의 합리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문구가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아울러 애초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특히 글로벌 사업자에게 구속력이 없어 국내 사업자만 옥죄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가이드라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본질적인 집행력의 한계라고 설명했다. 망 이용과 관련해 사업자 간 사적 계약을 존중하고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자율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반상권 과장은 "가이드라인은 향후 사업자 간 법적 문제 발생 시 정부에 법령 해석 기준과 시그널을 제시하고, 입법 마련 시에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국내외 대형 CP의 서비스 품질 유지 및 망 이용대가 관련 불공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나인 기자 silkni@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정상화 미동참뎀 '4+1협의체' 공조

민주당, 한국당 필리버스터 대응

"목적지를 향해 출발할 준비를 마쳤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내 정치 일정은 일일이 감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을 향해 "국회 정상화 버스 탑승을 결정하지 않으면 버스에 오를 기회는 영영 없을 것"이라며 199개 민생법안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행위 방해)를 거두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통제한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날짜는 오는 9일이다.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기 하루 전이다. 이날 전까지 한국당이 동참하지 않으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로 처리하겠

단 방침이다. 주말을 제외하면 한국당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 남았다. 사실상 단독으로 밀어붙이겠다 구상이다.

앞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2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손을 떠났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헌법 회계연도 개시일(1월 1일) 30일 전이다. 예결위가 이때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부의한다. 예산안은 필리버스터도 적용할 수 없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후 '신속처리 안전(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2개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2개도 4개 야당과 함께 논의하고 처리하겠다 방침이다. 실제 '4+1 협의체'는 공수처 설치법 단일안을 마련하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석대성 기자 bigstar@

www.pdna.co.kr

더 완벽해진 피디엔에이
동안피부를 위한
연어DNA 3배 강화*
P+DNA

* 기존 자사제품 대비

연어케어의
 원료성분
 sodium DNA



기대해보세요, 14일 후의 피부
 청정 연어에서 추출한 DNA 3000ppm 함유

- 기존 자사제품 대비 sodium DNA 함유량이 3배 더 강화되었습니다.
- 단백질 펩타이드, 프랑스 보르필린 등 차세대 프리미엄 원료를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 세라마이드 복합체, 발효추출물이 촉촉하게 빛나는 피부, 힘있는 피부로 바꿔줍니다.

어린 피부를 위한 DNA 과학

청정 연어 DNA 물광피부 항노화 효과	탄력보습 펩타이드 -1-7-8 단백질 복합체	주름개선 아데노신 주름개선기능성	스킨피밍 프랑스 세더마틴 보르필린	피부장벽 강화 세라마이드 복합체 건강한 피부지질회복



5가지 항산화 항노화 추출물

발효콩 항산화 영양소 이소플라본 함유	발효 겨우살이 매끄럽고 빛나는 피부결	발효 띠뿌리 식물성 에스트로겐 진정효과	병풀 추출물 피부 진정 피부영양강화	눈연꽃 추출물 피부 보호 및 영양 피부 톤업

P+DNA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인텐시브 DNA 세럼&크림

구입문의
 고객센터 **070-4870-0708**



NH농협은행, 따뜻한 겨울 사랑의 연탄나눔

NH농협은행은 지난 4일 여신심사부문이 서울시 노원구 상계3동과 4동을 찾아 '사랑의 연탄 나눔'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여신심사부문 봉사단원들은 자발적 성금으로 연탄 2000장을 마련해 취약한 난방으로 겨울나기가 힘든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 연탄을 배달했다. NH농협은행 송수일 여신심사부문 부행장(맨 앞)을 비롯한 NH농협은행 여신심사부문 봉사단원들이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농협은행



부영그룹, 캄보디아 청년의사협회에 10만불 기부

부영그룹이 캄보디아 자원봉사 청년의사협회(TYDA)에 후원금 10만달러를 후원하기로 했다. 부영그룹은 지난 3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부영그룹 이종근 회장을 대신한 신현석 고문(왼쪽)과 캄보디아 자원봉사 청년의사협회 훈 마넛 회장(오른쪽)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부영그룹이 후원하는 10만달러는 캄보디아 주민들의 무료 의료 혜택을 위해 쓰이게 된다. /부영그룹



KT스카이라이프, 상암동 사옥서 허브제품 기획전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4일 마포구 상암동 소재 KT스카이라이프 사옥에서 허브아일랜드의 친환경 허브 제품 할인 행사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허브아일랜드의 대표 상품인 ▲허브 천연차 세트 ▲허브 화장품 ▲아로마테라피 ▲허브 베이커리(마늘스틱, 오트밀피넛쿠키) 등을 선보였다. 양사는 수익금 일부를 허브아일랜드가 위치한 포천의 중증장애우 보육기관 '노아의 집'에 기부할 예정이다. /KT스카이라이프



롯데주류,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 수료

롯데주류는 지난 13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광고문화회관에서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 롯데주류 잠실권 직원을 150여명을 대상으로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 '보고, 듣고, 말하기'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생명사랑 지킴이 양성교육 수료증을 받은 롯데주류 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주류



CJ제일제당, 업계 첫 대리점 공정거래협약 체결

CJ제일제당이 식음료 업계 최초로 '대리점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CJ제일제당은 '상호평등'과 '상호신뢰', '상호이익'의 기본원칙에 근거해 자사 대리점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을 약속하는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강신호 CJ제일제당 식품사업부문 대표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대리점 대표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제일제당

사각턱 축소술



**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선천적으로 아래턱의 뼈가 과도하게 발달해 각이 쳐보이는 경우를 흔히 '사각턱'이라고 하는데, 턱이 크고 각진 정도가 심할수록 외모 콤플렉스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이러한 경우 비외과적 또는 외과적 처치를 통해 아래턱을 가름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시술방법은 원인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먼저 턱뼈는 크지 않은데 근육이 많이 발달한 경우에는 음식을 씹을 때 사용하는 저작근 부위에 보톡스 제재를 주입해 근육의 크기를 줄여줄 수 있다.

시술시간이 짧아 일명 '10분 성형'이라고도 불리는 보톡스 시술은 양성 교근비대증이나 턱·눈·가·입·가·미·간·이·마·주·름 등과 같은 표정주름을 없앨 때 주로 시행하며, 사각턱이나 종아리 근육,

승모근 라인이 발달한 경우에도 축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 보톡스는 필러와 달리 시술 후 약 10일이 지난 후부터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라면 한 달 전에 미리 시술받는 것이 좋고, 임신부나 수유 중인 여성은 약물이 상반응이 올 수 있으니 시술을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반면 골격 자체가 크거나 근육이 많이 발달한 경우에는 주사요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처음부터 '사각턱축소술'과 같은 안면윤곽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각턱축소술은 입안을 절개한 후 의료용 전기톱을 이용해 하악각부터 턱의 전방부까지 초생달 모양으로 길고 부드럽게 잘라내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이때 턱뼈를 직선으로 자르거나 안면신경을 건드릴 경우 안면신경 마비, 안면비대칭, 턱 변형(계단현상), 출혈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으니 의료기관 선택에 신중

을 기해야 한다.

또 턱 모양에 따라 수술방법을 조금씩 달리해야 하는데, 사각턱만 발달한 경우 각진 턱뼈만 제거해주면 되지만 턱끝이 짧고 하악각이 각진 일명 '도시락형 얼굴'인 경우에는 사각턱축소술과 턱끝성형술을 병행해야 확실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각턱축소술'이라고 해서 무작정 턱뼈를 제거했다가는 얼굴의 전체적인 균형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뼈가 함몰되거나 좌우대칭이 깨져버리는 안면비대칭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수술에 대한 전문성과 해부학적 지식을 갖춘 성형전문의에게 수술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의료상황에 대비해 수술실에 응급의료장비가 갖춰져 있는지, 마취전문의가 직접 마취를 집도하는 지 등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것이다.

/세민성형외과 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롯데, 국군장병 위한 독서카페 '청춘책방' 오픈

롯데는 5일 경기도 연천 28사단 273 포병대대에서 청춘책방 오픈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춘책방은 컨테이너 2개 동을 활용해 만든 도서관으로 도서 1000여권이 비치된 책장과 소파, 테이블 등이 있는 아늑한 휴게공간과 개인용 독서 책상, 음악 감상존으로 구성된 공부방 공간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자북 단말기(e-book)를 추가적으로 설치해 최신 책을 더욱 쉽게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5일 진행된 육군 28사단 청춘책방 오픈식에서 여운태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박양동 6군단장, 서욱 육군참모총장,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장만희 한국구세군 서기장관과 육군 및 롯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지주

인사

◆SK그룹 <SK주식회사> ◇신규 선임 △ 남정현 IR담당 △ 손성철 행복디자인센터 임원 △ 조성욱 투자2센터 임원 △ 채준식 재무1실장 △ 박제두 금융1본부장 △ 방섭주 에너지Digital추진그룹장 △ 신장수 Infra그룹장 △ 유진호 정보보호담당 △ 윤중식 Cloud그룹장 △ 임주환 에센코어 경영지원본부장 △ 최석주 DT Mgmt. Office 그룹장 △ 한유재 CPR담당 △ 정희영 SK China 경영지원실장 △ 박정신 SK바이오팜 신약개발사업부장 △ 정구민 SK바이오팜 신약연구소장 △ 정지영 SK바이오팜 재무실장 겸 SK LSI CFO (SK이노베이션) ◇ 신규 선임 △ 장영익 BUE(엔칭) CEO △ 장웨이 Battery중국사업개발실장 △ 김영광 재무5실장 △ 최훈용 연구지원실장 △ 김승주 최적화실장 △ 류진숙 경영전략실장 △ 김현석 Portfolio Option개발담당 <SK에너지> ◇ 신규 선임 △ 김광현 최적운영실장 △ 김기태 생산관리실장 △ 문종필 산업에너지사업부장 △ 박기원 석유1공장장 △ 전영록 석유2공장장 △ 최성준 Asphalt사업부장 △ 이동열 경영기획실장 △ 고종환 베트남TF 담당 <SK종합화학> ◇ 신규 선임 △ 이태근 Packaging사업부장 △ 최우혁 Account2담당 △ 박종혁 경영기획실장 <SK루브리컨츠> ◇ 사장 승진 △ 차규탁 ◇ 신규 선임 △ 이종우 유통유Global사업부장 △ 서정훈 경영관리실장 <SK텔레콤> ◇ 신규 선임 △ Eric Davis Global AI 개발그룹장 겸 Enterprise AI Solutions 그룹장 △ 김성준 유통1본부장 △ 김영준 AI NUI Tech그룹장 △ 김정규 말레이시아 Country Office 지사장 △ 오경식 스포츠마케팅그룹장 △ 이갑재 중부마케팅본부장 △ 이원민 ADT캡스 영업본부장 △ 정창권 서부Infra본부장 △ 최정환 IR2그룹장 겸 IR1그룹장 △ 하민용 경영기획2그룹장 <SK브로드밴드> ◇ 사장 승진 △ 최진환 ◇ 신규 선임 △ 최정호 SK브로드밴드 고객서비스그룹장 <SK하이닉스> ◇ 사장 승진 △ 진교원 △ 진정훈 ◇ 신규 선임 △ 김정수 △ 김진배 △ 김진혁 △ 김천성 △ 김현중 △ 류성수 △ 박준식 △ 박찬동 △ 서정민 △ 이강민 △ 이상환 △ 이성훈 △ 이순범 △ 이일우 △ 전종민 △ 진성곤 △ 최명섭 △ 최우진 <SK건설> ◇ 신규 선임 △ 김광윤 Infra OM혁신그룹장 △ 김도형 감사그룹장 △ 양재웅 건축OM혁신그룹장 △ 이대혁 해외Infra Marketing 그룹장 △ 이왕재 연료전자사업그룹장 △ 장현 SHE 그룹장 △ 정영도 법무그룹장 <SK E&S> ◇ 신규 선임 △ 김봉진 보령LNG터미널 대표이사 △ 김해진 지속경영본부장 △ 이종수 LNG 기획본부장 △ 이호식 SK E&S Americas COO △ 정재학 LNG System본부장 <SK네트웍스> ◇ 신규 선임 △ 김주형 SK렌터카 임원 △ 서성준 화학·소재사업부장 △ 윤민호 SK렌터카 임원 △ 이병준 Global 사업부장 △ 이영길 재무실장 △ 장영욱 SK렌터카 임원 △ 전형일 유통사업담당 <SKC> ◇ 신규 선임 △ 고도일 일하는방식혁신 추진실장 △ 나윤아 DBL추진실장 △ 신정환 Tech. Center장 △ 차주현 생산본부장

△ 이영진 New Biz. BM임원 △ 하민호 BM 혁신추진실장 <SK머티리얼즈> ◇ 사장 승진 △ 이용욱 ◇ 신규 선임 △ 양재훈 SK 에어가스 마케팅&사업개발실장 △ 유신 경영관리실장 △ 이재호 기반기술실장 △ 전석룡 공무실장 <SK실트론> ◇ 신규 선임 △ 손명승 DT추진실장 △ 이영석 행복Design지원실장 △ 장근준 전략기획실장 <SK디스커버리> ◇ 사장 승진 △ 박찬중 ◇ 신규 선임 △ 김하나 기업문화실장 <SK케미칼> ◇ 신규 선임 △ 최병규 에너지&Composite 생산담당 △ 최재영 재무지원실장 <SUP EX추진협의회> ◇ 신규 선임 △ 남재인 SV추진팀 임원 △ 박지수 인재육성CoE 임원 △ 이수범 신규사업팀 임원 △ 이진모 Global성장지원팀 임원 △ 전채란 신규사업팀 임원 △ 최영진 자율·책임경영지원단 임원 <SK University> ◇ 사장 승진 △ 조돈현 ◇ 신규 선임 △ 김도윤 SK University 임원 △ 김병준 SK University 임원

◆키움증권 <전보> ◇ 임원 업무 조정 △ 전략기획본부장 겸 경영지원본부장 유경오 △ 리테일총괄본부장 김희재 △ 리스크관리본부장 이동률 △ 리서치센터장 김지산 △ 홈세일총괄본부 패시브Sales&LP팀 담당 최혜경 △ 홈세일총괄본부 장외파생부문 총괄 김대욱 △ 홈세일총괄본부 채권영업부문 총괄 정준 ◇ 팀장 임명 △ 홈세일총괄본부 장외파생전략팀장 심창섭 △ 홈세일총괄본부 패시브Sales&LP팀장 홍완기 △ 홈세일총괄본부 FICC운용팀장 김동완 △ 홈세일총괄본부 구조파생팀장 임진호 △ 리서치센터 기업분석팀장 이종형

백화점 이색 마케팅 2題

딱

“멋쟁이 5060 모여라”

나한테 맞는 놀거리, 문자로

롯데백화점 잠실점

디자이너·엘레강스 상품군 강화
올 매출 10억... 3년간 ‘폭풍 성장’

롯데백화점이 디자이너·엘레강스 패션으로 중장년층 공략을 시작했다.

최근 5060세대들 사이에서는 ‘디자이너·엘레강스 의류’가 급부상하고 있다

5일 롯데백화점 빅데이터 분석 결과, 50대 이상이 가장 선호하는 패션 의류 상품군은 ‘디자이너·엘레강스’ 상품군이며 이 상품군을 찾는 고객들은 잠실점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이너·엘레강스 상품군은 같은 상품군 안에서 드 브랜드별 디자인과 스타일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5060세대 개개인의 고유 취향에 따라 브랜드를 선택하기 때문에 매니아층이 확실한 상품군 중 하나이며, 이는 특정한 스타일이 전체 시장과 유행을 선도하는 1020세대의 패스트 패션과는 정반대이다.

잠실점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롯데백화점 31개 점포 중 디자이너·엘레강스 상품군 매출 1위 점포이며, 전체 상품군 내 해당 상품군의 매출 구성비 역시 7.4%를 차지하며 많은 고객들이 잠실점에서 디자이너 의류를 구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직장을 다니는 젊은 고객들이 많은 상권이 주말에 매출 구성비가 높은 것과 대비해 평일 낮 시간을 활용하기 좋은 50~60대 고객들이 잠



롯데백화점에서 고객이 디자이너 의류를 살펴보고 있다.

실점을 많이 찾았기 때문이다. 특히 잠실점은 주변에 2만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대표적인 주거 상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업 주부들의 방문이 상대적으로 많다.

실제로, 잠실점에 입점한 ‘르베이지’, ‘손정완’, ‘보티첼리’, ‘래트바이티’, ‘이새’ 등 다양한 디자이너 브랜드들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잠실점에서만 10억 규모의 실적을 내며 지속적으로 신장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전 점의 디자이너·엘레강스 상품군의 매출도 2017년 2.6%, 2018년 2.3%, 2019년(1월~11월) 2.4% 신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잠실점은 6일부터 8일까지 ‘디자이너·엘레강스 의류 특가전’을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신세계백화점

사진 명소·아카데미 강좌·먹거리 등
즐길거리 업선 ‘스마트 메시지’ 선포

#.직장을 다니는 30대 A씨는 다가오는 주말을 맞이해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장소를 찾던 중 얼마 전 문자 메시지로 받아본 신세계백화점 쇼핑 메시지가 생각났다.쇼핑 뉴스만 전해주던 이전 메시지와는 달리 ‘크리스마스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명소’, ‘가족과 함께 신세계 즐기기’ 등과 같이 백화점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내용이 가득했다.A씨는 “신세계백화점 문자 메시지 덕분에 주말 데이트 고민이 해결됐다”며 “본점에 가서 깜짝 선물을 전하며 인기 드라마에 나왔던 조영길에서 여자친구와 사진을 찍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이 차별화 된 서비스 콘텐츠로 고객 만족에 나선다.

상품 정보만을 가득 채워 전송하는 ‘스마트 메시지(문자를 통한 세일, 사은행사, 특가상품 제공)’에 백화점에서 즐길 수 있는 알짜 콘텐츠도 업선해 함께 소개하는 것.

6일부터 새롭게 개선된 신세계백화점 스마트 메시지는 신세계백화점 각 점포별로 고객들이 즐길 수 있는 사진 명소, 성탄절 홈파티 준비를 위한 케익 만들기 아카데미 강좌, 주말을 맞이한 백화점 추천 먹거리 등을 소개한다. 신세계는 한층 진화된 이번 스마트 메시지를



#2 연인들의 로맨틱 크리스마스

신세계백화점 스마트 메시지

/신세계백화점

통해 적게는 월 60만 건에서 많게는 100만 건까지 발송되는 고객 소통 방법에 차별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는 향후 ‘SHINSEGAE LOVES FAMILY’ 등과 같은 대형 테마행사 진행 시 발송되는 스마트 메시지도 각 시즌에 맞춰 백화점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알짜 정보를 업선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 영업전략담당 이성환 상무는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차별화 된 서비스로 오프라인 쇼핑의 만족도를 한 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복합화, 대형화 되고 있는 유통업계에 개인화·맞춤형 마케팅을 접목해 업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롯데홈쇼핑은 지난 3일(화) 이틀간 미국 LA에서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 in LA’ 한국상품 수출 상담회를 진행했다. /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 中企 북미진출 마중물

미국 LA서 수출상담회 진행
상담액 약7000만 달러 성과

롯데홈쇼핑은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미국 LA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 수출 상담회를 진행해 상담실적 약 7000만 달러(약 835억 원)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미국은 롯데그룹이 호텔, 화학 사업 등을 시작으로 글로벌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곳 중 하나다. 4차 산업 관련 기술을 대거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케이팝(K-POP) 등 한류 열풍으로 한국 제품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국내 중소기업들의 진출은 물론 지속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자 미국을 개척지로 선정하게 됐다.

미국 현지에서 국내 민간기업이 주관한 최대 규모의 한국상품 수출 상담회로, 롯데그룹이 주최하고 롯데홈쇼핑이 주관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

부, 대중소협력재단 등이 협력기관으로 나섰다.

3일 미국 LA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진행된 개막 선언에 이어 한류 메이 크업 시연회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이어서 국내 중소기업 80개사, 미국 현지 바이어들이 참여해 1대 1 수출 상담, 제품 현지화 컨설팅 등 국내 기업들의 해외 유통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미국 현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생활리빙, 뷰티 제품 등 관심이 높은 상품군을 비롯해 롯데홈쇼핑 단독, 인기 상품들도 선보였다. 행사 첫 날 2000여 명이 넘는 현지인들이 방문했다. 또한, 롯데홈쇼핑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국내 유망 스타트업들도 참가해 상품 전시 및 현지 투자 설명회를 진행했다. 제주 발효 화장품을 생산하는 스타트업 ‘유니크미’는 현지인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신원선 기자

“연말 홈파티 준비하세요”... 이마트, 20억 규모 ‘먹거리 특가’

초밥세트·로스트치킨 등 다양

홈파티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마트가 12월 초부터 다양한 먹거리 행사를 선보인다. 이마트는 12월에도 홈파티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대규모 할인 행사를 기획했다.

이마트는 오는 11일까지 약 20억원 규모의 ‘연말 홈파티 먹거리’ 행사에 나선다. 연말을 맞아 여럿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기존 치킨 대비 크기가 50% 증가한 ‘어메이징 로스트치킨’을 1만3980원에 출시한다.



홈파티 초밥세트

일반적으로 치킨은 1~1.2kg 내외의 10~12호 닭을 사용하는데, 어메이징 로스트치킨은 시중에서 보기 어려운 1.8kg 내외 18호 닭을 튀기지 않고 구워 만든 것이 특징이다.

특히 협력사와 사전 기획을 통해 어메

이징 로스트치킨을 위한 18호 닭 8만수를 계약해 생산 단가를 낮췄으며, 이로 인해 크기는 50% 증가했지만 가격은 기존 치킨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온가족 및 친구들이 모여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온가족·홈파티 초밥세트’도 새롭게 선보인다.

온가족·홈파티 초밥세트는 초밥이 각각 19개, 27개로 구성된 혼합 초밥 세트로 1만5980·1만9980원에 판매한다. 이는 시중가 대비 20~30% 가량 저렴한 수준이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연어·광어·한치 등 가장 수요가 높은 초밥들을 업선해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뽕뜨락피자 단짠단짠 신제품 ‘콘츄리&비프츄리’

뽕뜨락피자는 신메뉴 ‘콘츄리&비프츄리(사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은 알알이 톡톡 터지는 옥수수(콘)의 매력을 담은 콘츄리 메뉴는 프리미엄 치즈 5종의 조화로 온 풍미와 이른바 ‘단짠단짠’ 콘치즈가 페스츄리에 덮여 달콤 바삭한 식감을 느끼기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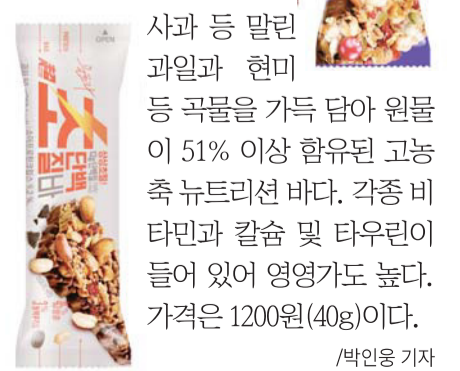
달콤한 스테이크소스에 불향이 가득한 스모키비프 비프츄리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불고기와 멕시코 퀘사디아가 만나 절묘한 ‘퓨전의 맛’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뽕뜨락피자는 신메뉴 2종의 출시를 기념해 오는 2월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먼저 요기요 및 배달의민족으로 주문 시 콘&비프츄리 + 2



또한 카카오톡 주문하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 내용과 동일하게 내년 2월까지 1만5000원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여기에 매일 러블리 9종 4000원 할인(피자 단품만) 혜택도 더해졌다. 아울러 방문포장 시 콘&비프츄리 L사이즈 세트(피자+왕큰후라이드) 1만6000원 할인도 준비됐다.

롯데제과 원물 가득 뉴트리션 바 2종

롯데제과가 견과류 등 원물이 가득 들어간 뉴트리션 바, ‘초에너지바’와 ‘초단백질바(사진)’를 선보였다고 5일 밝혔다. ‘초에너지바’는 땅콩, 호박씨 등의 견과류에 크랜베리, 사과 등 말린 과일과 현미 등 곡물을 가득 담아 원물이 51% 이상 함유된 고농축 뉴트리션 바다. 각종 비타민과 칼슘 및 타우린이 들어 있어 영양가도 높다. 가격은 1200원(40g)이다.



/백인용 기자

이화의료원-옵티메드, 일회용 대장내시경 공동 개발

“감염 위험없는 안전한 의료 제공”

협업 체계 구축... 의학 발전 기대
R&D·임상·학술보고 등 업무 진행
교차 감염 위험 해소 국민건강 기여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4일 이대 서울병원 대강당에서 ㈜옵티메드와 일회용 대장내시경 공동 개발 및 트레이닝 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병인 의료원장, 편육범 이대서울병원장, 한종인 목동병원장 등 의료원 관계자들과 김헌태 (주)옵티메드 대표이사, 이정주 전무이사, 이재훈 서울산업진흥원 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첨단 내시경 기기의 공동개발 및 트레이닝 센터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 관련 기술·생산·허가·시장 자문 ▲전임상, 임상시험 관련 업무 ▲성과물의 국내외 학술 보고 ▲대장내시경 트레이닝 센터 개소 등의 업무를 진행하기로 했다.

문병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우리 의료원은 진단 및 치료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감염 위험이 없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제공할



문병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왼쪽)과 김헌태 옵티메드 대표이사가 4일 이대서울병원 대강당에서 일회용 대장내시경 공동 개발 및 트레이닝 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 위해 세계 최초로 일회용 대장 치료 내시경을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하게 됐다”면서 “옵티메드와의 협업 체계 구축으로 국내 의료기기 기술과 의학수준도 함께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옵티메드 김헌태 대표이사는 “자체 개발한 일회용 위, 십이지장 내시경에 이어 이번에 진행되는 일회용 대장 내시경이 개발되면 기존 수입 브랜드에 의존했던 대장내시경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회용 내시경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소화기관 내시경과 관련한 세계 의료

기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회용 소모품을 제외하고 모두 세척 소독 과정을 거쳐 재사용되고 있는 내시경은 신체 점막 등에 직접 닿기 때문에 제대로 세척 및 소독하지 않으면 녹농균, 살모넬라균 등 세균과 B형감염 및 C형간염 바이러스 등이 남아 교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번 이화의료원과 옵티메드가 공동 개발하는 일회용 대장내시경은 교차 감염의 위험을 해소하며 국민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2중 레이어링 자외선 차단... 겨울 날씨에 ‘딱’

더페이스샵

‘파워 롱래스팅 모이스처 선’ 출시

자연주의 화장품 더페이스샵이 춥고 건조한 겨울철 날씨에 바르기 좋은 ‘파워 롱래스팅 모이스처 선’을 출시했다.

‘파워 롱래스팅 모이스처 선’은 더페이스샵의 대표 선크어 제품인 ‘파워 롱래스팅 선’의 모이스처 버전으로, 보습막과 자외선차단막의 2중 레이어링으로 건조하고 약해진 겨울철 피부를 지켜주는 선크림이다.

매마른 피부를 당김 없이 가꿔주는 보습 진정 성분을 함유해 피부를 오랜 시간 촉촉하게 유지시키고, 강력한 자외선 차단 기능으로 일상 생활은 물론 야외 활동에서 노출되는 자외선까지 방어해준다. 또한 피부에 촉촉하게 흡수되는 보습 크림 같은 제형으로 백탁 현상이나 끈도는 느낌 없이 남녀 구분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더페이스샵 측은 “과거에는 여름에만 중요성이 대두되던 선 제품이 자외



더페이스샵 파워롱래스팅 모이스처선 /LG생활건강

선 차단제의 중요성이 알려지며 계절 구분 없이 사계절 대표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번 신제품은 강력한 선크어 기능에 보습 성분을 더해 건조한 겨울철에도 피부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습 선크림”이라고 말했다.

파워 롱래스팅 모이스처 선을 포함한 파워 롱래스팅 선 라인의 전 제품은 전국 더페이스샵 및 네이처컬렉션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15회 보령의사수필문학상 대상

이대목동병원 남궁인 조교수 선정

보령제약이 제정해 15회째를 맞는 보령의사수필문학상 대상에 이대목동병원 남궁인조교수(사진)의 작품 ‘아침의 퇴근길’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5일 오후 6시 30분 보령제약 본사 중보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말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총 88편이 출품되었으며 한국수필문학진흥회(회장 이상규)에서 심사를 맡아 총 9편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에 선정된 남궁 조교수의 ‘아침의 퇴근길’은 담담한 이야기 속에 어머니와 아들인 작가 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배려, 부드러운 소통과 깊은 사랑이 배어 있는 작품이다.

병원 응급실 담당의사인 필자는 남들이 출근할 때 퇴근을 한다. 밤새 환자



들에게 시달린 필자는 지칠 대로 지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금세 졸음에 빠진다. 이때문에 아들은 어머니를 도움 상대로 선택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잠에 빠지지 않고 무사히 집까지 도착하게 하기 위해 무슨 이야기든 계속 들어주고, 무슨 이야기든 계속 이어 간다. 어머니는 외삼촌 집에서 밥을 먹은 이야기를 하고 아들은 간밤에 죽어간 환자 이야기를 하는 식이다. 결도, 초점도 일치하지 않지만, 모자간의 사랑과 배려 그리고 깊은 신뢰를 담담히 그려낸 것을 높이 평가 받았다.

/이세경 기자

패딩의 진화... 쿨팅선으로 부하지 않고 가볍게

부피감과 무게 줄이고 심플하게 변신
깔끔한 핏감 강조한 패딩 언이어 출시

겨울 기본템 패딩이 변신하고 있다. 올 시즌 패션업계는 뉴트로 감성의 푸퍼 스타일 패딩뿐만 아니라 부한 핏감을 줄인 우아한 실루엣의 제품도 함께 선보이는 등 다양한 디테일의 신상 패딩을 내놓고 있다. 부피감과 무게 때문에 패딩을 선택하기를 주저했던 코트족들에게 심플하고 가볍게 떨어지는 핏의 신상 패딩은 좋은 선택지가 됐다. 깔끔한 핏감을 강조한 패딩들은 공통적으로 쿨팅선에 변화를 준 것이 특징이다.

아웃도어 브랜드 밀레는 논쿨팅 공법을 적용한 제품 ‘벨레누스 다운’과 ‘GTX 아인 L 다운’을 출시했다.

‘벨레누스 다운’은 롱패딩 특유의 부한 핏감을 줄여 활동성과 스타일을 살린 후드 일체형 벤치파카다. 가슴의 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밀레 ‘벨레누스 다운’과 ‘GTX 아인 L 다운’, 지오스퍼릿 ‘이태리구스 시그니처 다운’, 헤드 ‘버티컬 구스 다운’

리곤 프린트와 네온컬러 포인트로 슬림한 핏에 고급스러움을 더했으며 2L 방풍 폴리 소재 사용으로 가벼우면서

도 따뜻하다.

아웃도어 브랜드 네과는 코트의 스타일리시함을 살린 ‘구스코트 아르테’를 출시했다. 기존 다운재킷과 달리 쿨팅선이 없어 심플하고 포멀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핏감을 강조하면서도 헝가리 구스 다운을 사용해 보온성을 극대화했고 고어텍스 소재를 적용해 방수와 투습 기능을 살렸다.

프리미엄 아우터 브랜드 지오스퍼릿은 ‘이태리구스 시그니처 다운’을 출시했다. 가볍고 보온성이 뛰어난 구스 다운 충전재가 적용되었으며 쿨팅선이 없는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으로 심플하고 투박한 기존 패딩의 단점을 보완했다.

스포츠 브랜드 헤드는 세로 쿨팅 기법을 사용한 다운 상품 ‘버티컬 구스 다운’을 선보였다. 보통 다운 충전재는 중력의 영향으로 아래로 쳐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로 방향으로 쿨팅선을 디자인한다.

/신원선 기자

한미약품, ‘청춘팔팔’ 이어 ‘기팔팔’ 상표 소송 승소

의약품·영양보충 식품에 ‘팔팔’ 금지

한미약품이 ‘청춘팔팔’에 이어 ‘기팔팔’ 상표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뿐만 아니라, 의약품 및 영양보충을 표방하는 일반 드링크제, 식이보충제 등 식품에도 ‘팔팔’을 붙인 제품명

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5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달 29일 건강관리용약제, 식이보충제, 혼합비타민제, 영양보충드링크믹스 등으로 등록된 상표 ‘기팔팔’에 대해 상표권을 무효로 하라고 판결했다.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해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하고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다.

한미약품은 이번 상표권 소송 승소에 따라 ‘팔팔’ 브랜드의 오리지널리티를 확고히 구축하게 됐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1일에도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에 대한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세경 기자

트렌디하고 모던하게... 발렌타인 한정판 출시

‘발렌타인 17년 아티스트 에디션’

발렌타인이 세계적인 아티스트와의 콜라베이션을 통해 탄생된 ‘발렌타인 17년 아티스트 에디션’ 한정판을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발렌타인 17년 아티스트 에디션’은 미국 브루클린을 베이스로 활동하는 세계적인 아티스트 스캇 알브레트와 함께 했다. 그는 다양한 컬러와 소재를 이용해 ‘순간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패치워크 아티스트로, 영하고 힙한 감성으로 공공, 패션, 스포츠를 넘나들며 글로벌하게 전시를 진행 중이다.

스캇이 완성한 이번 아티스트 에디션은 한층 더 트렌디하고 모던하게 재



발렌타인 17년 아티스트 에디션 /페르노리카 코리아

탄생 됐다. 그의 작품 세계관이 투영된 바틀 라벨과 패키지는 아티스트의 시그니처 패턴이라 할 수 있는 경쾌한 컬러와 패치워크로 더욱 컬러풀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완성됐다.

/박민용 기자 parkiu7854@

‘사랑의 온도탑’ 3도 높인 LG의 120억 성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1년간 기탁
“연말 맞아 온정 필요한 이웃에 보탬을”

LG가 올 겨울에도 이웃들과 온도를 나눈다.

LG는 5일 서울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120억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서울 광화문광장 ‘사랑의 온도탑’ 온도도 약 3도 상승했다.

이날 행사에는 ㈜LG 이방수 CSR팀 부사장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종석 회장이 참석했다.

성금은 사회취약계층 기초생계 지원과 주거 및 교육환경 개선, 청소년 교육사업 등 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방수 부사장은 “연말을 맞아 우리 사회의 온정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LG



LG는 5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이웃사랑성금 12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방수(주)LG CSR부사장(왼쪽)과 예종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

가 가진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해 진정성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익사업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는 1999년부터 21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800억원 이상 이웃사랑 성금을 기탁해왔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脫대부 ‘P2P금융’



기지수첩

김유진
(파이낸스&마켓부)

중금리 대출도 법의 보호 아래 더 다양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도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들과 중소기업자들이 P2P금융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원활하게 받아왔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31일을 기준으로 협회 회원사의 누적 대출 취급액은 5조3077억원을 넘는다. 공시를 시작한 2016년 6월 말 1525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성장세다.

법 제도를 받기 전 P2P금융은 제대로 된 규제가 없어 대출, 투자사기가 난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산업의 핀테크 활성화와 중금리 대출시장 확대 등 밝은 청사진을 기대했고 결국 P2P금융은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섰다.

P2P 제도에 따르면 P2P업체는 최소 5억원의 자기자본을 갖춰야만 영업 등록을 할 수 있고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등 투자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세금은 현재 투자로 얻은 소득에 27.5%가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15.4%로 낮아진다. 시중은행에 적금 수준이다.

이제 막 서막을 올리기 시작한 P2P금융이 건전하고 안전한 연 수익률 10%가 넘는 투자 상품들이 준비하다.

이제 막 서막을 올리기 시작한 P2P금융이 건전하고 안전한 연 수익률 10%가 넘는 투자 상품들이 준비하다.

이제 막 서막을 올리기 시작한 P2P금융이 건전하고 안전한 연 수익률 10%가 넘는 투자 상품들이 준비하다.

이제 막 서막을 올리기 시작한 P2P금융이 건전하고 안전한 연 수익률 10%가 넘는 투자 상품들이 준비하다.

코트라, 사회적가치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KOTRA(코트라)가 오는 15일까지 ‘국민과 KOTRA가 함께 만드는 사회적가치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에서 코트라는 무역·투자 기능과 연계된 사회적가치 사업과 혁신적 서비스 관련 아이디어를 찾는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내벤처 설립 ▲채용제도 개선 ▲전국 조직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

공인 마케팅 경쟁력 강화 ▲사회적경제기업 해외진출 지원 ▲해외채류 국민 안전 강화 ▲혁신적 서비스와 홍보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한다. 선정 결과는 26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이디어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코트라 사업에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포상금은 대상 200만원(1명), 금상 100만원(1명), 은상 50만원(2명)이다.

안영주 코트라 사회적가치실장은 “우리



국민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KOTRA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회적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오늘의 운세 12월 6일(음 11월 10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소원성취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다. 48년생 동분서주해보야 이득이 많지 않다. 60년생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72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가지 않는 법. 84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른다.
- 37년생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먹을 수 있다. 49년생 귀인이 나타나니 좋은 투자처가 생긴다. 61년생 김칫국부터 마시다가는 낭패를 본다. 73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말조심. 85년생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별로 없다.
- 38년생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50년생 오늘 준비해야 내일이 기다려지는 법. 62년생 삶은 계속되고 아직 꿈꿀 시간은 많다. 74년생 오늘 하루는 화려한 복장이 어울린다. 86년생 사소한 실수로 일이 틀어질 수.
- 39년생 먹거리를 선물 받는다. 51년생 공들인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63년생 어린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니 주의. 75년생 배우자가 고생을 알아주니 피곤이 풀린다. 87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최선을 다하자.
- 40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52년생 자신 없는 일을 맡아 마음이 불편. 64년생 동료와 의견 차이로 약간의 손해가 발생. 76년생 약속이 겹칠 수 있으니 반드시 메모. 88년생 내키지 않는 술자리는 피하라.
- 41년생 신중히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 53년생 모난 돌이 정맞는 법이니 인색하지 마라. 65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쇼핑을 하는 것도 좋다. 77년생 자식의 재능이 많아 오히려 근심. 89년생 피곤한 날이니 돈거래는 하다가 다들 수.

- 42년생 쉽게 처리된 일이 성과는 늦게 나타난다. 54년생 지치가 쉬우니 휴식을. 66년생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면 만회하기 어렵다. 78년생 기쁨은 근심을 동반하니 검소하게. 90년생 어느 방향으로 떠나도 거칠 것이 없다.
- 43년생 요행수를 바라다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 55년생 아랫사람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 67년생 소금장사 나서는 데 비 오는 격. 79년생 관청으로부터 큰 일거리를 맡는다. 91년생 알 수 없는 향기에 취해 시간을 낭비.
- 44년생 심신은 고단하나 재물은 들어온다. 56년생 화려한 상대를 만나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느껴진다. 68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80년생 구름 속 태양을 의식하지 말고 노력. 92년생 음주는 주의하라.
- 45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유쾌한 만남. 57년생 양보다는 좋은 품질로 승부. 69년생 지척에 상대보다는 결점을 보완하자. 81년생 올바른 처신은 구설수를 예방한다. 93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을 하게 된다.
- 46년생 무조건 안 쓰기보다는 화기에 예민한 모임을 해보자. 58년생 자기 생각을 바로 말하지 마라. 70년생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82년생 한밤중에 비단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 94년생 이직에 드르지 마라.
- 47년생 상황판단이 빨라야 손해 보지 않는다. 59년생 지위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행동. 71년생 자식이 좋은 평가를 받으니 구름을 탄듯하다. 83년생 마음이 울적하니 소주 생각. 95년생 늦었다 싶어도 빨리 행동해야 후회없다.



김상회의四季

아이의 미래 찾아본다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학교 성적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다고들 말한다. 적성일 것이다. 적성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 그 일에 잘 맞는지를 보는 것이다. 어렵게 취업하고도 회사를 그만두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다. 중소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 중에 37%가 퇴사를 했다.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만두는 경우가 32%나 됐다. 적성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적성을 잘 알아줘야 대학교 전공을 정할 때 취업 때 실수를 하지 않는다. 적성은 태어날 때부터의 성품을 바탕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아이의 사주가 어떠한지를 먼저 보는 게 정확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사주에 식신이 많으면 그 아이는 남들에게 베푸는 일을 좋아하고 반려견 등을 잘 보호하는 일에 관심이 많다. 이런 아이는 동식물을 다루는 직종으로 가면 좋다. 교육계로 나서거나 연구원 같은 일도 잘 어울린다. 상관이 많은 사주는 남들 앞에 나서서 걸 좋아하고 색다른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다. 방송과 관계된 업무를 맡아서 하면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이 기발하니 발명가나 제품을 개발하는 기획부서로 가면 천직에 가깝다. 사주에 정관이 있다면 공무원 쪽이 잘 맞는다. 정관은 주어진 그대로 또는 원칙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성격이다. 꼼꼼함이 필요한 재정 분야에서 일하면 재능을 발휘하기 좋다.

이렇게 사주에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좋아하는 일이 다르고 잘할 수 있는 직종이 다르다. 특성에 맞지 않는 일을 택하면 언젠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 적성을 찾는 건 부모들이 차분한 마음으로 아이를 지켜보는 사랑이 우선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3.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6					
3		6	7		4	1		2
4	5						9	3
7		4			2			8
			6		8			
6		2			9			1
2	6						1	9
5		3	9		6	8		4
				3				

			4		8			
	3	8				4	5	
	2		9		3		8	
1		3		4		8		6
			7		9			
2		7		8		9		3
	6		8		5		3	
	7	5				1	6	
				2		6		

스도쿠 정답								
9	2	5	3	8	6	7	1	4
7	8	9	1	6	5	2	3	8
6	1	4	7	5	8	9	2	3
1	5	6	8	7	3	8	9	2
2	8	7	8	9	5	1	6	4
8	9	2	5	6	1	7	4	3
4	6	9	1	8	2	3	5	7
3	8	1	7	5	2	9	6	4
5	7	4	6	9	1	2	8	3
8	6	5	9	2	1	7	4	3
2	9	1	7	6	5	2	3	8
7	4	5	1	8	2	9	6	3
4	7	6	1	8	9	2	5	3
5	1	2	6	4	9	8	7	3
1	8	9	4	5	6	7	2	3
6	5	7	2	1	8	4	9	3
2	3	8	9	7	6	1	5	4

문제 제공= 보너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3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42호

호주 최초의 비오니아 와인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51> 알룸바

맑고 수수한 봄꽃이 가득 피어났다. 부드러운 질감이 풍족하지만 과하지는 않다. 산도 높은 화이트와인을 싫어했던 이들도 충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음미할 만한 풍미를 길게 남긴다.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 알룸바의 비오니아 와인이다.

호주 와인은 잘 익은 진득한 레드와인이 전부라는 편견이 깨졌다. 알룸바는 전 세계 와인애호가들에게 호주 화이트 와인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알룸바 팀 헤르만 세일즈 매니저는 서울 서초구 '오늘, 와인 한잔 예당점'에서 인터뷰를 갖고 "알룸바는 프랑스 남부의 포도품종으로만 생각되던 비오니아를 호주에 처음 들여온 것은 물론 상용화에 성공했다"며 "40년 가까이 쌓인 경험과 노력으로 최고의 비오니아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오니아는 고급 화이트와인 품종이지만 키우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품종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와인 메이커의 실력이 모두 갖춰져야 제대로 된 비오니아 와인을 만들 수 있다.

현재 알룸바는 비오니아 품종에 있어서는 프랑스를 제외하고 가장 영향력있는 생산자다. 다양한 실험 재배가 가능했던 자체 종묘장과 170년간 쌓인 테루아에 대한 지식이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다.

'알룸바 에텐 밸리 비오니아 2017'은 비오니아 품종 100%로 만들었다. 야생 효모로 발효를 해 맑고 자연스러운 질



알룸바 팀 헤르만 세일즈 매니저.

감이 잘 살아있다. 비오니아 특유의 풍미를 느끼려면 일반 화이트와인보다는 높은 온도로 마시는게 좋다.

'알룸바 에텐 밸리 비오니아'가 레드와인 같은 화이트와인이라면 '알룸바 바로사 GSM'은 향도 맛도 예쁘게 느껴지는 화이트와인 같은 레드와인이다.

'알룸바 바로사 GSM 2017'은 그르니슈와 쉬라즈, 마타로 품종으로 만든다. 3가지 품종은 각각 오크통과 스테인리스 탱크에서 양조과정을 거치며, 와인의 질감과 복잡미를 위해서 다양한 사이즈의 오크통을 사용해 숙성한다. 친근한 풍미에 밝은 과일 느낌으로 한식의 매운 육류와 먹기도 좋다.

알룸바 와인이 맑고 깨끗한 맛을 내는 또 다른 비결은 바로 오크통이다.

알룸바는 오크통을 제작하는 쿠퍼리지(Cooperage)를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와인이나 품종의 특성에 따른 미묘한 차이를 오크통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은 와인양조에 있어 큰 장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체 오크통 제작소를 가지고 있는 와이너리는 7개 밖에 없다.

알룸바의 '옥타비우스 올드 바인 쉬라즈'의 경우 일반적인 사이즈의 오크통(약 200L)이 아닌 90L의 작은 사이즈의 오크통에서 정밀하게 숙성해 오크의 풍미를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다.

'알룸바 옥타비우스 2015'는 100년 가까이 된 올드 바인 쉬라즈로 만든다. 바로사에 있는 매우 오래된 포도밭에서 건조농법으로 재배된 포도만으로 양조된다. 각 빈티지별 최고의 포도로 만들며, 세계에서 가장 작은 오크통에서 정밀하게 숙성되는 레드와인이다. 검붉은 먹자두 같은 짙은 붉은 색이며, 진하며 매우 복합적인 자두와 길게 남는 감초의 풍미가 강렬한 탄닌의 여운으로 뒷받침된다.

지난달로 170주년을 맞은 알룸바는 호주 토착어로 '이 모든 땅'을 뜻한다.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가족 경영 와이너리인 올해는 6세대가 합류하면서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smahn1@metroseoul.co.kr



자료 협조

인천대, 대학발전 재정 '청신호'

市 지원 보완 협약안 수정·가결
조성원가 공급 송도 땅 축소 합의

인천대는 지난 2013년 체결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지원에 관한 협약서'를 보완한 '인천대와 인천광역시 간 보완협약안'을 지난 3일 이사회에서 수정·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대가 차입한 금액 1500억원 중 인천시가 243억원을 삭감하는 문제를 이번 보완협약안을 통해 해결했다. 이에 따라 인천대는 차입금 전액을 지원받게 돼 안정적인 현금 지원을 확보하게 됐다.

또 2019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50억~200억원 이상 총 2000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지원받는다. 단, 이 조항의 '인천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라는 단서 조항이 담긴 문구는 평의회 의견을 반영해 삭제했다.

시립대 시절 인천대 구성원들이 적

립했던 시립대학발전기금 112억도 되찾는다. 특히, 이번 보완협약안에는 인천대가 지역 거점국립대학으로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점이 주목된다.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는 경우 산·학협력기금 총 3067억원을 지원받기로 한 기존 협약을 확인했다.

또 인천대는 제물포캠퍼스 6만7000평을 예정대로 제공받아 시정 역점사업인 원도심 개발을 위해 인천시와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 협약내용 중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11공구 조항은 쟁점이었던 부분이다. 인천시가 송도 11공구 부지 10만평을 조성원가로 제공하기로 했던 내용은 까다로운 전제 조건을 모두 삭제하고 3만평을 조성원가로 우선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손현경기자 son89@

백석대·백석문화대 우수 인재양성·교육 등 박차

中 치타이허시·KID글로벌과 MOU

백석대학교·백석문화대학교가 4일 교내 본부동 소회의실에서 중국 하이룽장성의 대표적인 공업도시 치타이허시, KID글로벌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석대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과 백석문화대 송기신 총장 등 대학 관계자를 비롯해 치타이허시 자쥘 시장, 왕펑 발리현인민정부 현장(王峰), KID글로벌 김광호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각 기관들은 중국 치타이허시의 우수한 인재 발굴과 교육 사업을 위해 ▲

상호 방문 교류 협력 ▲공동 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우수인재양성 및 교류 프로그램 진행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백석대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과 백석문화대 송기신 총장은 "중국에서 귀한 손님을 모셔 영광"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로의 강점을 함께 공유하는 좋은 친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치타이허시 자쥘 시장은 "치타이허시의 학생이 백석대와 백석문화대에서 한국의 좋은 문화와 교육을 경험하고 돌아와 지역발전에 힘쓰길 바란다"고 전했다.

/손현경 기자

웅진씽크빅 '웅진스마트올' 한 달 만에 1만명 돌파

에듀테크 전문 기업 웅진씽크빅은 지난달 선보인 초등 전과목 AI스마트학습 '웅진스마트올'이 출시 한 달 만에 가입 회원 1만명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1일 론칭한 웅진스마트올은 40년간 축적된 웅진씽크빅의 학습 콘텐츠와 교육 노하우, 업계 최대 규모 약 500억건의 학습빅데이터를 집약한 전과목 인공지능(AI)학습 플랫폼이다. 약 500억건의 학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된 AI 플랫폼을 통해 개인별 맞춤 학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학습 습관 형성과 자기 주도 학습을 이끌어 주는 것이 특징이다.

또, 초등 교과 과정에 필요한 필독 도서 및 인기 영어 동화 등을 제공하는 도서 큐레이션 서비스도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겨울왕국, 토이스토리 등 월트디즈니사와 독점 계약한 영어 동화도 함께 볼 수 있다. /한용수 기자



남서울대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학생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서울대

남서울대, 청년 창업역량 활성화 팔 걷어

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맞손

남서울대는 지난 4일 서울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대회의실에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학생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윤승용 총장과 황철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청년 및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한 공동 노력 ▲창업특강 및 페스티벌 공동 개최 ▲기업

가정신 함양 및 대학내 창업문화 활성화 등을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윤승용 총장은 "이번 협약은 남서울대 학생의 창업 역량 향상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창업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이 더욱 긴밀히 협조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황철주 이사장은 지난달 29일 남서울대에서 열린 창업경진대회에 참석해 '혁신성장과 기업가 정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는 등 남서울대와 긴밀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손현경 기자

한국외대 대한전자공학회 추계학술대회서 최우수논문상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전자공학과 이은애 박사과정생(사진)이 지난달 강릉라카이센드과인리조트에서 창립 73주년을 기념해 열린 대한전자공학회 '2019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수상 논문은 '잔상 보정기법을 사용한 잡음 파워 스펙트럼 측정'으로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의료영상연구실 김동식 교수 지도로 이은애 박사과정생이 썼다. 이 씨는 삼성전자 후원의 시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이번 논문은 동영상 x선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의료 장비인 동영상 방사선 디텍터의 잡음에 대한 성능평가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개발한 논문으로, 고성능 디텍터의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용수 기자 hys@

삼육대·송실대 '남북한 예체능' 주제로 토크콘서트

삼육대 이음인문교양교육연구소와 송실대 베어드교양대학이 4일 삼육대 백주년기념관 장근청홀에서 '송실대 X 삼육대 중간소음: 잊지 북한과 아랫집 남한의 소음극복 프로젝트'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공동 개최했다.

통일부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크콘서트에서는 평화와 통일에 발맞춰 남북한 예체능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먼저 김용성 삼육대스미스학부대학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음악(북한 대학원대 이승희) ▲체육(현대북한연

구회 허정필) ▲미술(중앙대 최희선) ▲영상(탈북민 유튜브 이소율) ▲교양교육(삼육대 한금윤) ▲통일교육(송실대 채수민)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통일시대 예체능 및 교양교육 분야에서 남북한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이어진 '평화와 통일의 목소리' 코너에서는 삼육대 학생들이 '통일한국과 나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며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한 적용점을 모색했다.

/손현경 기자

만성질환은
가까운 동네의원으로!
암 같은 큰 질병은
중증질환 전문병원으로!



생활습관을 상담받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고,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쌓고,
그래서 가까운 동네의원이 좋습니다



보건복지부

KMA 대한의사협회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AI 윤리, 기업 자율규제로... 기술 집중할 수 있게 지원”

인터뷰 | 전창배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



전창배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가 지난 10월 23일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인공지능 윤리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희대 광운대 교수, 황준호 공간그룹 이사, 한정택 동국대 교수, 이청호 협회장(세종대 교수), 전창배 이사장(아이오닉 대표), 홍철수 JMTEC 대표, 김태성 MBC플러스센터장, 윤성호 변리사, 백종민 7MILES 대표.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인공지능(AI)이 흑인, 여성을 차별하고, 경비로봇이 오류로 1살 아이를 공격해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미국, 러시아 등이 킬러로봇인 군사용 자율로봇을 개발한다는 점입니다. AI 윤리는 안전과 직결돼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기 때문에 기술 발전 초기부터 이 문제를 꼭 고민해야 합니다.”

전창배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KAIEA) 이사장은 메트로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2016년 ‘알파고 대국’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긴 이후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그이면으로 AI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AI는 우리 후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AI 윤리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를 졸업하고, 인터파크·야후코리아·TU미디어 등 IT 기업에서 근무해 오다 지난해 6월 블록체인 기업 아이오닉을 설립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3년 전 이슈로 떠오른 AI 윤리 문제를 접하고 큰 관심을 가져왔다.

“전 세계 학계에서는 이미 ‘AI Ethics(윤리)’라는 키워드로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어느 주제도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 다. AI 윤리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나가는 목적으로 이청호 협회

AI 윤리 문제 안전에 엄청난 파급력 후손들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윤리 지침 구체적·실질적으로 구성

장(세종대학교 교수) 등과 함께 지난 3월 협회를 설립했습니다.”

AI의 이면에 대해 고(故) 스티븐호킹 박사는 “AI 기술이 인류 문명사에서 최악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고, 엘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AI가 5년이나 10년 후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AI의 문제로 킬러로봇이 인간의 생명권을 경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지뢰제거 로봇이나 인명구조 로봇 등 사람을 살리는 로봇은 적극 개발해야 하지만, 인명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율살상무기는 금지해야 합니다. 최근 미국 전투용 드론이 민간인과 전투원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 아프간 민간인 30명을 살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킬러로봇도 오류 발생 시 인간을 공격 대상으로 취급해 대량 학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결정은 절대로 기계에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AI역작용에 대한 우려로 2017년 AI 비영리단체인 퓨처오브라이프가 ‘아실로마 AI 원칙’을 발표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지선언을 했으며, 최근 유럽연합(EU)·독일·일본·중국등에서도

AI 윤리 지침들을 발표했다. “저희 협회는 지난 10월 23일 ‘인공지능 윤리헌장’을 발표했습니다. 협회에서 전 세계 AI 관련 지침들을 묶어 표준화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에 역점을 두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AI 개발자들이 저희 지침만 보더라도 AI를 어떻게 개발하고 사용해야 할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는 기존에 나왔던 AI 윤리지침들이 너무 선언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렵고, 조항이 짧아 실제 산업 현장에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협회가 발표한 AI 윤리헌장은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조항들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AI 윤리 지침 중 처음으로 ‘인간과 인공지능과의 관계’를 규정했습니다. 1장에 ‘인공지능은 인간을 편리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한 도구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절대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의 어떤 의사결정도 인간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등입니다.” 그는 AI의 선한 본성 추구(5조), AI가 인간과 동등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점(6조), 전쟁 목적의 AI 개발 금지(8조), 비상용 킬스위치 필수 내장(16조), 소비자 정보 보호 및 고지 의무(30조) 등은 전 세계 최초의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업들 사이에서 ‘AI 산업이 국내에서 무르익기도 전에 AI 윤리를 먼저 내놓는 것은 오히려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AI 윤리로 규제를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내 AI 기술이 미국·중국에 비해 많이 뒤져 있기 때문에 강제 규제가 아닌 기업 자율규제로 가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법제화가 필요하다면 최소화해야 합니다. 저희 협회는 기업들이 안전과 위험 문제에서 벗어나 기술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협회가 AI 윤리, 안전에 대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정부와 중재해주는 역할을 맡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AI 윤리를 많이 알리고 전파하려 합니다. AI 기술이 초기 약인공지능 단계로 강인공지능으로 가기 위해 20~30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AI 윤리도 초창기로 인식 공유가 출발점입니다. 저희 협회는 교육 사업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협회에 현직 교사들이 많이 참여한 만큼, 미래 AI 개발자가 될 초·중·고 학생들부터 AI·기술 윤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는 교과과정 내 AI 윤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커리큘럼과 학교 특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협회 하부 기관으로 AI 윤리 교육 전문 기관도 설립할 계획이다.

/채운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공급사-수요사 매칭... 기업 네트워크 강화에 혼신

AI 관련 협회 어떤 일 하나

시포럼·콘퍼런스 등 행사 개최
세미나 열고 비즈니스 모델 소개

인공지능(AI) 관련 협회 및 대표 기업들이 공급기업-수요기업 간 매칭 등을 위한 네트워크 자리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지능정보산업협회·한국인공지능협회 등 AI 대표 협회들이 ‘AI 공급기업들과 수요기업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강화를 내년 주요 사업 목표로 정하고 AI 포럼, 콘퍼런스 등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이스트소프트·마인즈랩 등 대표 AI 기업들도 자사의 AI 기술 소개는 물론 AI 스타트업들이 직접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고 기업 간 교류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행사를 적극 마련하고 있다.

AI 관련 협회들은 AI 기업들이 AI 플랫폼, 챗봇, 금융,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한 AI 솔루션들을 개발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 AI 산업이 초기단계여서 유스케이스 발굴을 위해 공급기업과 수요기



지능정보산업협회가 지난 11월 5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2019 금융-AI Tech 포럼’을 개최했다. /지능정보산업협회

업을 연결해주는 매개자 역할을 담당한다는 계획이다.

지능정보산업협회는 최근 ‘자동차-AI 테크 포럼’, ‘금융-AI 테크 포럼’ 등 행사를 개최해 공급 기업들과 수요 기업들의 만남을 주선했다.

지능정보산업협회 관계자는 “2017년 처음 KB금융지주와 ‘금융-AI 테크 포럼’을 진행해 AI 기업 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AI 테크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며 “AI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내부 해결이 어려운 경우, 아웃바운드 외부에서 실력 있는 업체를 찾겠다며 협회에

의뢰해오고, AI 전문업체들도 유스케이스를 필요로 해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가 많다”고 설명했다. KB금융지주와 진행한 AI 테크 포럼은 KB금융지주 관계자가 AI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자 하는 3가지 이슈를 소개하고, 5~6개 기업들이 관련 솔루션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7월 진행한 ‘자동차-AI 테크’ 포럼에서는 현대자동차 등 기업들이 AI 분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공유하고, AI 전문기업들이 관련 솔루션을 소개했다.

협회는 또 내년에는 제조-AI 테크 포럼, 의료-AI 테크 포럼 등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우디의 석유회사인 아람코가 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최근 협회에 가입하는 등 제조업체들이 AI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공지능협회는 내년 중점 사업 목표를 AI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을 매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내년에 기업들이 만날 수 있는 대규모 콘퍼런스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인공지능협회 관계자는 “최근 AI 기업들의 편람을 만들고 수요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내년에는 제조,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수요 산업에 대해 발표하고 공급기업을 소개해 계약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3~4

일간 콘퍼런스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회에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200여개 소속돼 있고, 교육을 통해 수요-공급 간 매개를 담당할 전문 컨설턴트 100여명도 양성한 만큼 내년에 매개자로서 창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마인즈랩은 자사 AI 플랫폼을 소개하고, AI 관련 기업들이 모여 R&D 및 AI 프로젝트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인 ‘에코마인즈’를 마련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1월 27일에는 ‘인공지능과 가까워지는 특별한 하루, ecoMINDs Day’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는 자사 AI 플랫폼 ‘마음 AI’ 적용 사례를 소개했을 뿐 아니라 AI 스타트업 기업의 직접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도록 했다.

이스트소프트도 지난 11월 6일 개최한 ‘AI 플러스 2019’ 행사를 통해 AI 분야 종사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세션을 진행하고, 참가업체인 스캐터랩이 AI 일상대화 챗봇 빌더를 소개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도 마련했다. /채운정 기자

노벨평화상 수상자, 내년 서울서 모인다... 월드서밋 유치

사무총장 “한반도 평화에 긍정 영향” 각국 수상자 30명 외 1000여명 참석 내년 10월 셋째주 평화주간 지정

내년에 서울에서 제18차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WSNPL)이 열린다.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수상기관 관계자 등이 모여 세계평화를 논의하는 대규모 국제회의이다.

서울시는 ‘2020년 제18차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서울 유치를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예카트리나 자글라디아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18차 회의의 개최도시로 ‘서울’을 공식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한국은 식민지와 분단, 전쟁과 심각한 군사독재를 겪은 도시로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큰 비극과 고난, 고통이 함께했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예카트리나 자글라디아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사무총장이 5일 오전 서울시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18차 회의의 개최도시로 ‘서울’을 공식 발표했다. /서울시

며 “내년 10월 수십명의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이 비극의 땅 한반도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발신한다”고 말했다.

예카트리나 자글라디아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사무총장은 “긴장과 반목으로 우려의 대상이었던 한반도가 최근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의 거점으로 다시 부상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냉전 종식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은 전 세계

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았다”며 “이 지역에서 평화와 화해를 위한 움직임이 중요하다. 노벨평화상수상자들이 보여주는 영감과 에너지가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노벨평화상수상자월드서밋’에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수상기관 약 30명을 비롯해 평화 관련 단체와 운동가, 세계 각국의 대학생과 교수진, 외신기자단 등

약 1000여명이 참여한다. 시는 이 행사 개최기간(내년 10월 셋째 주)을 ‘평화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국제 콘퍼런스와 평화문화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월드서밋은 고르바초프 재단의 제안으로 1999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처음 개최됐다. 이후 매년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열리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지난 2010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바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사무국은 “남북평화 문제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이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의 취지와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도시”라며 “전쟁 이후 이뤄낸 서울의 놀라운 경제성장률과 문화, 국제행사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 등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시는 노벨평화상수상자 월드서밋을 통해 서울을 전 세계에 알린다. 아울러 내년 개최 예정인 ‘제1회 서울평화포

럼’을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국제 포럼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시와 노벨평화상수상자월드서밋 사무국은 이날 내년 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준비위원회’를 출범해 본격적인 회의 개최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시는 내년 회의에서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안보·평화 관련 국제 전문가 등을 초청할 예정이다.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의 활동 전시회, 평화 콘서트, 비무장 지대(DMZ) 등 평화 상징공간에서 문화 행사 등 시민참여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박 시장은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을 유도하고 평화의 상징으로서 서울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고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를 위한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데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금연거리 만드니 끊었다... 서울시 우수사례 공유

광진·구로·금천·영등포·강남구 우수 금연 정책으로 금연 도와

서울시는 ‘2019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사업 성과대회’를 열고 광진·구로·금천·영등포·강남구의 우수 금연 정책 사례를 공유한다고 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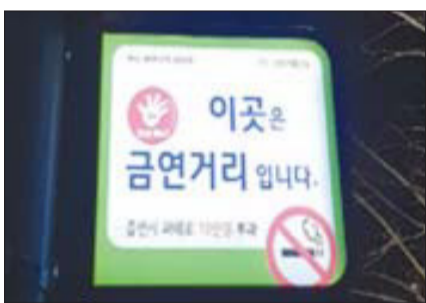
광진구는 청소년의 흡연예방·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 결과 청소년 금연 성공률이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높게 나타났다.

구로구는 관내 모든 학교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주요 지점에 금연 홍보 표시판을 설치해 흡연 단속 민원을 줄이고 금연거리 홍보를 강화했다.

금천구는 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금연 행복 아파트 사업을 추진했다.

구는 공동주택 주민설명회를 38회 개최해 금연 행복 아파트 13개소를 지정하는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구는 금연결심자를 위한 금연 펀드 조성 등 금연 환경 만들기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영등포구는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공개 공지와 5000㎡ 이상 대형 건축



구로구 금연거리 홍보 표시판. /서울시

물 사유지 내에서 흡연을 단속할 법적 인 근거를 마련했다. 또 여의도 증권가 9개 빌딩 담당자와 협의해 금연 거리를 지정하고 민간기업과 함께 흡연 부스를 설치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였다.

강남구는 영동대로 코엑스 주변에 수목을 조성해 흡연자와 보행자 간 동선을 분리, 간접흡연 피해 민원을 해결했다.

한편 시는 교육청과 함께 210개 학교 통학로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 사회와 협력해 금연환경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담배 판매 근절을 위해 서울시 내 편의점 2600개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불법 판매 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업체 분사에 자율정화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김현정 기자

불꽃축제 폭죽, 미세먼지 등 대기질 악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농도 44µg/m³서 1시간 뒤 55µg/m³ “대기질 안 좋을 땐 행사 검토 필요”

불꽃축제 때 터뜨리는 폭죽이 대기질을 악화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한강 불꽃축제 폭죽 사용으로 행사장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5일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서울 세계 불꽃축제 당시 행사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축제 초반인 오후 8시 44µg/m³에서 1시간 뒤 55µg/m³로 올라 최고 농도를 기록했다. 이후 오후 10시 54µg/m³, 11시 11µg/m³, 12시 5µg/m³로 내려갔다.

미세먼지(PM-10) 농도는 오후 8시 56µg/m³에서 10시 80µg/m³까지 치솟았다가 11시 24µg/m³, 12시 9µg/m³로 낮아졌다.

대기질은 축제 시작 전, 중간, 후로 나눠 측정했다. 폭죽이 터지는 한강을 중심으로 행사장근거리는 여의도(반경 1km)와 이촌 한강공원(반경 2km) 두 지점에 이동 측정 차량을 각각 설치했고 주변 지역에 위치한 영등포구와 용산구, 동작구의 도시대기측정소 농도를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19’가 지난 10월 5일 저녁 7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여의도 63빌딩 앞과 이촌지구 한강공원 일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정연우 기자

관찰했다.

서울연구원은 “불꽃축제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이 환경과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대기질을 조사한 결과 행사장 주변 국소적인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했다”며 “그러나 당일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단시간에 기존의 대기질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인근 주거 지역에는 농도 변화가 없어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36~75µg/m³, 미세먼지 농도가 81~100µg/

m³이면 ‘나쁨’ 수준에 해당한다. 행사 당시 풍속인 초속 4.2m는 당일 하루 평균 풍속인 초속 2.9m보다 높아 대기 확산이 원활했다.

신용승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행사는 대기질이 좋은 상황에서 개최돼 불꽃축제로 인한 영향이 행사장 일부에 일시적으로만 영향을 미쳤다”며 “하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대기질이 안 좋을 때에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행사 개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32 | 해짐 / 17:13

12월 6일 (금)
음력 : 11월 10일

수도권 날씨 **-9 ~ -7 °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지역별 날씨: 연천 -13/1, 동두천 -13/2, 가평 -12/2, 파주 -15/1, 서울 -9/1, 양평 -11/2, 수원 -7/1, 용인 -7/1, 평택 -10/2, 백령도 -3/2

·자료제공 : Kw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IoT로 파열사고 예방... 서울기술研, 열수송관 관리기술 개발

서울기술연구원은 사물인터넷(IoT)으로 열수송관 파열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원이 이번에 개발한 ‘첨단 IoT 기반 열수송관 유지관리 기술’은 손상 지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 정보를 무선 통신망을 통해 유지 관리자에게 바로 전송하는 기능을 갖췄다.

그동안 열수송관 유지관리는 작업자

가 지상에서 GPR(지표투과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일일이 점검하는 방식으로 열수송관 전체를 다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정확도도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고양시 백석동과 서울시 목동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노후 열수송관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주원인으로 지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열수송관의 관리 및 파열 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지난 11월 서울에너지공사 중계-신내지구 신설 열수송관(80m)에 해당 기술을 적용했다. 5개월간 시범 운영을 통해 실증작업을 거쳐 내년 서울에너지공사가 신설하는 열수송관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산업] 카카오-대한항공 MOU "항공권 결제·탑승 등 모바일 혁신" 06



Life

[산업] 노른자위양 공장 내줘야하는 삼표 대체부지 '골머리' 08



'1% 커피의 룰'... 5가지 원두로 5가지 프리미엄 커피를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80 매일유업 '바리스타룰스'

매일유업은 지난 1997년 컵커피인 카페라떼 브랜드를 선보였다. 이후 2007년 커피산지와 바리스타의 역할을 강조한 프리미엄 제품 '바리스타룰스'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컵커피 시장 1위에 올랐다.

◆바리스타 룰스의 탄생

1997년 국내에 처음 도입한 컵커피 제품인 '카페라떼'는 차별화되고 독특한 개성을 표출하고 싶어하는 트렌드에 따라 고급스러운 커피 이미지를 콘셉트로 설정했다. 초기 개발 당시 수 차례의 시장조사 및 소비자 조사를 통해 정통 원두커피의 맛과 향을 개발하고, 신선한 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냉장 유통되고, 어디서나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컵을 용기로 적용했다.

멸균이 가능한 컵을 적용해 기존 컵커피 캔 수준의 내용물 보존성을 확보하고, 위생 및 편리성을 강조하기 위해 스냅-온 리드(Snap-on Lid) 캡을 적용했다. 스트로우를 부착해 꽂아 마실 수 있게 함으로써 RTD(Ready To Drink)커피 시장에 워킹드링크 패키지 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다니면서 마시는 원두커피라는 차별화된 콘셉트는 적중해 출시 5개월만에 전체 컵커피 시장의 10%를 점유하고 10개 일간지 히트상품으로 선정됐다.

카페라떼 이후 고급 컵커피 시장이 커지며 경쟁이 치열해지자 매일유업은 카페라떼 출시 10년 만인 2007년에 제품을 한 단계 더 고급화한 '바리스타'를 선보였다. 커피전문점 시장이 커지면서 프리미엄급의 커피를 즐기는 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 1%의 고산지 프리미엄 원두를 블렌딩하고 전문 바리스타와 커피감사의 맞춤 로스팅 및 정교한 테스팅 기법을 통해 원두 본연의 풍미를 살려 컵커피 시장의 고급화를 주도했다.

'1% 커피의 룰'을 적용한 '바리스타'는 기존 200ml '카페라떼'에서 용량을 25% 증량시킨 250ml 빅사이즈 컵을 적용하였다. 직경 85mm 빅사이즈 컵을 적용함으로써,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의 분위기와 차별화된 맛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원두 산지·바리스타 강조해 차별화 5가지 맛에 맞는 프리미엄 원두 선택 풍미·장점 살리는 로스팅·추출법 적용 북경매일유한공사 만들어 편의점 유통 중서 컵커피로 냉장 커피음료 시장 열어

◆원두의 선택

에스프레소라떼, 스모키로스팅라떼, 마다가스카르바닐라라떼. 이는 바리스타룰스의 제품들이다. 제품명이 말해 주듯, 에스프레소라떼는 풍부한 바디감을, 스모키로스팅라떼는 스모키향을, 마다가스카르바닐라라떼는 바닐라향을 살려줄 플레이버로 연상된다.

바리스타룰스는 각 플레이버에 맞는 원두를 선택했다. 풍부한 바디감을 위해서는 목직하 나무 느낌에 코코아, 발효 과일향의 특성을 지닌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가요마운틴 G1 원두를, 스모키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화산지역인 인도네시아 만델링의 원두를, 바닐라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은은하게 배합을 하여도 바디감이 살아날 수 있는 남미의 엘살바도르 원두를 선택했다.

바리스타룰스는 다양하고 높은 품질의 커피 맛을 대중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대륙과 원산지가 가진 원두의 특징을 찾아 수백번의 커피 테스트를 통해 최적의 원두를 찾아낸다.

◆로스팅과 추출

원두가 가진 고유 풍미는 로스팅과 추출법에서 결정된다. 로스팅은 말 그대로 커피 원두를 볶아내는 것으로 그 시간과 강도의 강약 단계에 따라 원두가 가진 신맛, 단맛, 쓴맛의 비율이 달라지게 된다.

모카프레스의 경우 견과류와 초콜릿 풍미의 코스타리카 원두를 선택해 강배전에 속하는 프렌치 다크 로스팅을 해 초콜릿의 달콤 씹사름한 맛을 표현했다. 바리스타룰스 제품의 용량은 250ml와 325ml 두 가지인데 250ml는 풍부한 바디감을 구현하는 에스프레소 추출 방법을, 325ml는 목넘김을 좋게 하는 부드러운 핸드드립 추출 방식을 적용했다.

선택한 원두 각각의 특징점을 살리기 위한 로스팅과 추출법을 정한 후 또 한가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양산을 위한 기술 적용이다. 대량 생산을 위해 한 번에 수백 킬로에 달하는 원두를 최적의 설정 시점에 로스팅하는 기술 또한 수차례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타협할 수 없는 두번째 원칙, 로스팅과 추출의 영역이다.

◆원료의 마리아주, 최고의 레시피

바리스타룰스가 오랜 기간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절제된 단맛과 커피의 조화로 인한 바리스타룰스만의 맛이 기여한 바가 크다. 원두의 단맛, 로스팅을 통한 단맛과 신맛, 쓴맛의 조화, 다음으로 신선한 원유에서 유래하는 단맛의 조화, 즉 원료 본연의 단맛을 잘 살려 바리스타룰스의 단맛은 지나치게 달지 않고 마시

고 나서 혀끝에 오래 남지 않는 깔끔하고 절제된 단맛으로 표현된다.

로어슈거 에스프레소라떼의 경우, 설탕을 30% 줄인 단맛의 빈 공간을 원유 함량을 높여 유당 유래의 당분으로 채우고 커피의 바디감을 높여 또 한번 채웠다. 강렬한 에스프레소라떼의 맛을 위한 커피와 원유의 최적 배합비, 바닐라향을 살리기 위한 은은한 커피향의 구현, 초콜릿의 단맛을 세련되게 표현하기 위한 신맛의 조화는 바리스타룰스의 맛을 완성시키는 레시피다. 대량 생산을 위한 꾸준한 품질 체크 함께 설계된 레시피에 대한 지속적 기술 체크까지 바리스타룰스의 원칙은 굳건히 지켜지고 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커피를 즐기는 한국 소비자들의 취향과 맛에 대한 평가 기준은 글로벌 커피 시장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에 속한다"며 "바리스타룰스는 매일유업의 커피 전문가들이 해외의 커피 농장을 직접 방문해 생두를 구매하고, 최적의 원두 로스팅 방식을 연구하고 개발해 차별화된 맛을 선보이는 프리미엄 컵커피 브랜드로, 특히 스모키 로스팅 라떼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참숯 로스팅을 컵커피에 적용해 소비자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중 진출한 바리스타 룰스

매일유업은 2013년 12월 중국에 바리스타룰스를 선보였다. 당시 중국의 경제 성장과 국민 소득 증가, 원두 시장의 개방 및 교류, 여가 생활을 즐기는 중국인이 증가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리면서 커피숍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수출을 시작했다.

이후 2018년 2월 중국에 바리스타룰스를 중심으로 음료를 직접 유통하기 위해 북경매일유한공사를 만들었다. 현재 주로 1성급 편의점을 중심으로 바리스타룰스 250ml 6종 제품 등을 유통하고 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중국 소비자들은 상온 음료를 즐겨마시는 특성이 있지만 매일유업이 컵커피를 통해 중국 냉장 커피음료 시장을 열었다"며 "앞으로 시장이 더욱 확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사진=매일유업

에스프레소 라떼 | 수마트라 가요마운틴 블렌딩

스모키 로스팅라떼 | 만델링 Grade1 블렌딩

로어슈거 에스프레소라떼 | 케냐 AA 블렌딩

모카프레스 | 코스타리카 SHB 블렌딩

카리멜 딥 프레스 | 과테말라 안티구아 SHB 블렌딩

